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6
vol.145



GUCCI



BVLGARI

ROMA

SERPENTI



MICHAELKORS.COM



MICHAEL KORS
COLLECTION



54

56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구찌의 2016~17 F/W 광고 캠페인 이미지다. 도쿄를 배경으로 크라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을 담은 모델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트루블 앤드루와 칼라라레산체 산보인, 그라피티가 그려진 구찌 고스트 핸드백을 함께 착용했다. 문의 02-1661-0405



32

- 14 **세계의 미식 경향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미식 트렌드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지금, 주목해야 할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살펴본다.
- 16 **2016 F/W TREND REPORT** 새롭게 업데이트된 트렌드 키워드 일곱 가지.
- 18 **NEW EDITION** 기계식 위치 중에서도 올해 첫선을 보인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한다.
- 20 **EXTRA FINE**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배일에 써여 있던 하이엔드 코즈메틱 리스트.
- 22 **FALL IN COLORS** 깊이감이 느껴지는 색상과 다채로운 텍스처가 어우러진 2016 가을 잇 컬러 팔레트.
- 24 **SKIN CALMING** 유해 성분을 모두 배제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민감성 피부를 위한 코즈메틱을 소개한다.
- 26 **GET THE NEW** 실용적이면서 멋스러운 디자인의 뉴 백.
- 28 **FIT THE CASE** 남자를 위한 2016 F/W 신상 백.
- 30 **BON VOYAGE** 당신의 여행길에 동반자가 되어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수납력을 갖춘 보스턴백.
- 32 **A FANTASTIC MAN** 오랜만에 진짜 남자를 만났다. 드라마 〈판타스틱〉으로 돌아온 배우 주상욱의 차명적인 매력을 포착했다.
- 40 **MECHANICAL PERFECTION** 크리스티 커, 다이아나 루나까지, 파워풀한 골프 여제들의 손목에 채워진 리처드 밀(Richard Mille)의 정교한 타임피스.
- 42 **AN ETERNAL CLASSIC** 장인 정신과 개척 정신, 감각적인 비전을 담은 몽블랑의 워치 컬렉션이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 44 **LUXURIOUS ADDICTION** 신세계백화점이 소개하는 이탈리아 감성의 프리미엄 캐시미어 브랜드 델라라나(Della Lana).
- 46 **PERFECT DREAM SKIN** 베이스 메이크업의 감각, 디올이 브랜드의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아 선보이는 최초의 쿠션 팩트.
- 47 **SENSUAL DUO** 입체적이고 클래식하면서도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섹시얼한 미자막 터치, 톰 포드 뷰티 립 컨투어 듀오.
- 48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가 선택한, 쌀쌀한 가을에 어울리는 뷰티 리스트.
- 49 **EXPERT ADVICE** 피부 전문가들이 만든, 까다로운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CNP Rx 매장에서 경험할 아주 특별한 체험.
- 50 **NOBLE FIBRES** 보석 같은 패브릭으로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몰롬보 노블 파이버'가 탄생하는 한장에 다녀왔다.
- 52 **THE VALUE OF TRUST**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명성을 얻은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이영탁 교수와 BMW 뉴 7 시리즈.
- 54 **SPLendor OF COLORS** 바진 백을 연상시키는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생-루이의 작품이 펼쳐내는 빛과 색의 미학.
- 55 **FOUND NARRATIVES** 패션 피플의 관심을 집중시킬 새로운 랜드마크, 미우미우(MIU MIU) 창당 플래그십 스토어.
- 56 **GO RETROLICIOUS** 레트로 열풍은 그저 지나가버린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정서의 반영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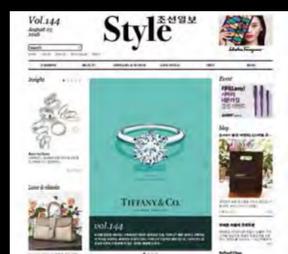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145 September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중세의 백자를 보는 듯
잔잔한 꽃무늬가 포인트인
셔츠 45만원대 **에트르**.

핑크 컬러 렌즈가 빈티지
느낌을 더하는 선글라스
21만원대 **렘**.

백과 로고 패턴 장식의
벨트가 인상적인 벨트
45만원대 **발프** **발프**.

어떠한 룩에나 포인트가
되어줄 핫 레드 색상의 페도라
48만원대 **구찌**.

따뜻한 겨울의 불행, 화이트의
칼라 플로어까지 돋보이는
하이탑 스니커즈가전 가장
크리스찬 **루부앵**.

for him Selection

그때 그 청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빈티지 플라워 프린트와
체크 패턴, 로고 장식, 그리고 총천연색의 하모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단정하면서도
유쾌한 패턴
반전을 연출한
리본 목도리
20만원대 **다들**.

클러치백을 장식한 데이지 패턴이
아우러낸 슈즈 1백20만원대 **페라가모**.

승마 모자를 연상케
하는 블랙 캡
모자 1백만원대
에트르.

1940년대 해군원 군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죽 팔도 오트
99만원대 **해럴드**.

모노그램 캔버스로 제작한
보스톤백, 45x27cm,
3백만원대 **루이 비통**.

클래식한 블랙 데미
슈즈에 레드 퍼 장식 등
이질적인 느낌이 아우러져
스타일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슈즈 1백20만원대
살비토레 **페라가모**.

듀오 디자인이나 둘레 8가마의 모습을 형상화한 가죽 패치
장식의 클러치, 30x21cm, 1백20만원대 **올레안지베라**.

브랜트 이니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포플 벨트
65만원대 **벤디**.

구찌 1577-1921
벤디 02-2056-9023
에트르 02-511-2573
렘 070-8692-8452
라미 02-2192-9661
발프 02-545-8200
다들 02-513-0300
프라다 02-3218-5331
올레안지베라 02-3444-0077
살비토레 페라가모 02-2140-9664
에트르 02-544-7722
루이 비통 02-3432-1854
해럴드 02-3149-9593
크리스찬 루부앵 02-6905-3795

단정한 크림 베이지 셔츠 89만원, 체크 패턴과 화려한 스웨이드 장식을 더해
레트로 무드를 표현한 재킷 2백95만원 모두 **구찌**.



Loro Piana

SINCE 1924



LANCÔME
PARIS



컬러풀한 핸드 드로잉 프린트가 돋보이는 스카프 50만원대 에르메스.

글래머러스한 디자인의 핸드 슈크로 핑크 골드 시그니처 링 9백만원대 프라드.

글러투링 그린 라이터 재킷 2백58만원 굿문구스 디렉스.

도화적인 무드의 화이트 코팅된 선글라스 68만원대 빅토리아 베를유 by 율리칼 디퓨유.

에스닉한 이즈 장식으로 꾸민 채 모티브의 브로치 17만원 율리칼 디퓨유 by 본디.

매튜 디테일의 카링 42만원대 로에베 by 10 코르소 코모.

메릴릭 골드 컬러의 라버 플랫폼 슈즈 1백만원대 스텔라 매카트니.

라피스 라줄리 소재의 원형 팬던트가 우아한 아틀라프 드롭 이어링 9백만원대 까르디에.

젊은 레드 색상의 페도라 1백만원대 에르메스.

for her
Selection

복고의 열풍은 계속된다. 화려한 컬러와 광택 나는 소재, 빈티지한 장식성을 더해 맥시멈하게 전개되는 레트로 룩.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자카드 소재의 V넥 원피스 2백30만원대 프라드.



플로리드 라바라리아트, 팔레트 그린 등 고급 컬러의 스톤 장식이 어우러진 링 2백만원대 로에베 by 본디.

볼드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앵글루즈 1백50만원대 파예트 아르디.

브라스 소재의 밴드 너클 링 50만원대 3개 세트 루이 비통.

LOUIS VUITTON



반달 모양의 보드에 코튼 스트랩을 장식한 르 무탕 백, 25X21cm, 4백50만원대 엘보.



ASERPIA로 영감을 받아 샤페르트 이펙트, 감수된 에디터, 루팡, 아미엔



아이코닉한 비세토스 캠퍼스에 유니크한 래킷 프린트가 돋보이는 트롤리, 34X55cm, 1백59만원 MCM.

- 에르메스 02-544-7722
- 율리칼 디퓨유 02-522-4343
- 본디샵 02-2056-1234
-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 파예트 아르디 02-310-5051
- MCM 02-540-1404
- 루이 비통 02-3432-1854
- 보테가 베네타 02-515-2717
- 엘보 02-3449-5916
- 굿문구스 디렉스 02-6905-3683
- 프라드 02-3218-5331
- 프라드 02-514-3721
- 까르디에 1566-7277
-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진귀한 로즈펄 블렌딩으로 깨어나는
피부 생명력

ABSOLUE L'EXTRAIT
NEW 압슬뤼 렉스트레 로즈펄 앰플 마스크



세계의 미식 경향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드디어 서울에도 미슐랭 스타가 상륙한다. 이는 2007년 미슐랭 도쿄 가이드, 2008년 홍콩 & 마카오 가이드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발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미식 문화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SNS의 발달로 각국의 레시피와 미식 트렌드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지금, 주목해야 할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살펴본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미식에 미치는 영향

〈미슐랭 가이드 서울(Michelin Guide Seoul)〉에는 어떤 레스토랑이 등재될까? 또 이 책이 발간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미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의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풍문도 들리기에, 미식가라면 〈미슐랭 가이드 서울〉의 퍼스트 에디션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미슐랭 가이드는 식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함, 요리의 창의적 개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레스토랑을 평가한다. 미슐랭 스타는 1931년에 이르러 지금의 체계를 갖추었는데, 1 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2 스타는 요리가 훌륭해 멀리서도 찾아갈 만한 식당, 그리고 3 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는 의미다. 다수의 평가원이 한 레스토랑을 여러 번 방문해 논의를 거쳐 별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하는 미슐랭 스타인 메다 한국의 미식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기 때문에 미식가와 셰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미슐랭 가이드와 쌍벽을 이루는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W50B) 순위에는 오르지 못한 변화의 나라인 예도,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미슐랭 가이드 발간 국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한국의 미식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겠다. W50B는 2002년 시작된 미식 행사인데, 파인 다이닝 오피니언 리더 9백 명의 투표로 결정되며,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같은 미식 강국뿐 아니라 제3국의 식문화를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W50B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태국, 중국, 싱가포르 레스토랑만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불 수교 1백 30주년을 기념하는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elices)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랑스 요리 거장 마시알 앙그아르(Martial Enguehard) 셰프는 미슐랭 가이드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에 한국 요식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의 레스토랑들은 부여받은 미슐랭 스타에 따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젊은 셰프들은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셰프의 최종 목표가 미슐랭 3 스타는 아니겠지만, 미슐랭 스타를 받는다는 것은 셰프에게 최고의 찬사이자 영예이며 더 좋은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www.annefrancecoree.kr)

미식의 세계화 시대에 전통 요리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요리는 미슐랭 가이드 발상지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명성과 더불어 여전히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마시알 앙그아르 셰프는 프랑스 미식 트렌드와 세계의 미식 경향은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프랑스의 트렌드가 곧 세계의 트렌드이며, 세계의 미식 경향이 곧 프랑스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테크니파와 식재료의 활발한 공유와 함께 SNS의 발달로 세계 요리가 뒤섞이고 각 나라의 전통 요리법이 혼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고르게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각 나라의 파인 다이닝이 서로 비슷해져 각국의 아이덴티티가 희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프랑스 알자스의 배추 요리 슈크루트(choucroute)와 우리나라 김치는 발효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처럼, 각국의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식의 전통 테크니파와 식재료를 활용하는 모던 한식의 도약을 주목할 만하다. ‘딩글스’, ‘정식당’처럼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레스토랑들이 우리나라 대표 식당으로 인정받으며, 특급 호텔의 한식 레스토랑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역시 전통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레스토랑과 셰프를 후원하고 있기에, 한식 레시피와 식재료를 도입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단순히 관심을 모으기 위한 무분별한 한식 접목을 지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모던 한식이 전통 한식보다 접근하기 쉽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지만, 이 때문에 한식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한식이 아닌 다른 분야의 미식 발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에서 한식의 인기는 뜨거웠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셰프가 한식을 응용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벨기에의 음식 궁합 가이드 ‘푸드 페어링(Food Pairing)’은 한국 농림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고추장, 된장, 막걸리 등 분석 범위를 넓히고 있다. 푸드 페어링은 음식에 대한 경험은 80%가 냄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김치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치즈, 오이, 캐러멜, 제라늄 향기 등 8백여 개의 향 분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중요한 향은 60여 개로, 이에 착안해 김치와 잘 어울리는 새로운 식재료와 레시피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푸드 페어링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과 고추장 역시 이런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정한, 조화로운 식재료와 레시피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드 페어링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고추장에 어울리는 식재료는 모차렐라 치즈, 쇠고기, 치즈 케이크, 견과류, 땅고, 비트, 채리 등이다. 이를 이용해 고추장의 제조 원리와 맛의 묘미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셰프라도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 수 있거나 흥미롭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인젠가는 외국인 셰프가 획기적인 모던 한식을 선보일 수도 있을 듯하다. 최근 벨기에의 쇼콜라티에 도미니크 퍼쿠네(Dominique Percoone)는 푸드 페어링을 이용해 각각 고추장, 된장, 김을 넣은 초콜릿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푸드 페어링의 두 창업자 베르나르 라후스(Bernard Lahousse)와 피터 코케트(Peter Coucquyt)는 벨기에의 한국계 셰프 상용 드장브르(Sang-hoon Degeimbre)와 친분이 깊기 때문에 한식 식재료 분석이 더욱 흥미롭다고 밝혔다. (www.seoulfoodfest.co.kr)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요리가 가장 중요하다

구 드 프랑스(Gou't de France)는 1912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프랑스의 미식 축제다. 매년 3월 21일에 전 세계 셰프들이 프랑스 음식을 준비해 일제히 프랑스의 미식을 만끽하는데, 올해는 전 세계에서 1천여 명의 셰프가 프렌치 만찬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청동 ‘르즈옹’, 팔판동 ‘아파블르’, 부산 ‘베르셀’ 등 11개 레스토랑이 선정되었다. 참가를 원하는 셰프는 사전에 창의적 메뉴를 등록하는데, 알랭 뒤카스 셰프가 주축이 된 위원회가 메뉴를 살펴보고 나라별 셰프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올해의 구 드 프랑스 가이드라인은 각 나라의 전통 요리법을 이용해 프랑스 요리와의 조화를 추구할 것, 신선한 현지 계절 식재료로 지방, 설탕, 소금을 적게 사용한 건강한 요리를 선보일 것 등이었다. (http://kr.france.fr) 아마 이 가이드라인이 2016년의 세계 미식 트렌드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대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직면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셰프로써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요리를 만드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알랭 뒤카스 셰프가 육류를 사용하지 않는 코스 요리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적으로 육류뿐 아니라 달걀과 치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began)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건이 미식 트렌드를 점령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조차 육류를 먹지 않거나 곤충, 콩으로 육류 요리를 대체하는 것에는 아직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인들은 소 · 돼지 · 닭고기, 푸아그라 등 동물 단백질을 획득하기 위해 도축이나 축산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셰프들이 도축업자, 농부와 협업하는 것도 보다 건강하고 공정하게 유통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해외에서는 셰프와 도축업자, 농부의 결합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알랭 파사드(Alain Passard) 셰프는 라르페주 팜 앤드 오차드(L'Arpege Farms & Orchard), 토머스 켈러(Thomas Keller) 셰프는 프렌치 런더리 컬리너리 가든(French Laundry Culinary Garden), 크리스토퍼 토스토(Christopher Kostow) 셰프는 메도우우드 가든(Meadowood Garden)을 직접 혹은 연계·운영하며 보다 건강한 메뉴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레스토랑 ‘제로 콤플렉스’의 이충후 셰프와 여주에서 ‘컬리너리 가든’을 운영하는 박미영 농부가 1년 내내 농장에서 미팅을 할 정도로 완벽한 협업을 하는 콤비로 알려져 있다. 셰프와 농부의 협업은 식물의 성장 단계별 선택이 가능해 가장 맛있는 시기에 요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작물을 사용해 요리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셰프들이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도 유행이다. ‘오 키친의 스무 셰프와 페레노의 신승환 셰프, ‘보나세라의 샘 킴 셰프 등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만든다.

새로운 미식 성지 페루 & 조지아의 맛과 멋

우리가 미슐랭 3 스타와 W50B 레스토랑을 찾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현대인은 보다 즐겁고 흥미진진한 미식 경험을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위치를 모르는 레스토랑 울트라바이올렛 바이 폴 페레(Ultraviolet by Paul Pairet)는 주목받는 레스토랑 중 하나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레스토랑 울트라바이올렛은 2015년 W50B 레스토랑에서 24위를 차지했으며, 약 1백만원의 고가이지만 3개월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다. 하루에 단 10명의 고객만 맞이하며, 식사 전에 다 같이 차를 타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이동해 4D 만찬을 즐기도록 한다. 폴 페레 셰프는 요리에 따라 미각뿐 아니라 청각, 후각, 시각, 촉각까지 제안하는데, 예를 들어 해산물 요리를 서브할 때는 360도 HD를 통해 바다 영상이 흘러나오고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이 레스토랑에 가득 찬다. 소 프렌치 델리스를 위해 방한한 21세의 최연소 미슐랭 1 스타 셰프 줄리아 세데프지안(Julia Sedefdjian)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렌드는 ‘비스트로노미(bistronomy)’라고 설명했다. 비스트로(bistro, 캐주얼한 레스토랑)와 가스트로노미(gastronomy, 미식)의 합성어인 비스트로노미는 최근 유럽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식가들이 고가 레스토랑 방문을 자제하는 바람에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줄리아 세데프지안 셰프의 레스토랑 레 파블 드 라 폰테(Fontaine)도 부촌인 파리 16구에 위치하는데도 보다 인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급 메뉴와 대중적 메뉴를 동시에 구비했다. 요리의 질과 창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다채로운 가격대의 메뉴로 접근성을 높인 것. (www.softrenddelices.com) 마지막으로 미식 여행을 위한 새로운 테스트스테이션을 제안하고 싶다. 물론 프랑스, 미국, 스페인 미식 여행도 좋다. 하지만 새로운 성지는 조지아(Georgia)와 페루(Peru)다. 조지아는 흑해와 카프카스 산맥에 둘러싸여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실크로드에 위치해 향신료가 발달했다. 와인과 치즈 또한 유서 깊고 다채로우 누구라도 반할 만하다. 2016 서울 고메를 위해 방한하는 페루의 비르힐리오 마르티네스 벨리스(Virgilio Martinez Véliz) 셰프는 2015년 W50B에서 4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오른 셰프다. 모국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그는 해발 5,000m에서 재배한 감자와 야생 변종 키노아, 1백20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현대적 페루비안 요리(Peruvian cuisine)를 선보인다. 더욱 독특한 식재료를 찾기 위해 페루를 탐험하는 전문 학제 그룹을 후원해 그들이 발견한 식재료도 요리에 적용한다고 하니, 세계적으로 페루비안 요리가 주목받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www.seoulgourmet.com) 맛있는 음식은 문화 발전의 수단이며, 국가 간의 교류를 이끈다.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통의 원천이며,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지금 가장 트렌디한 요리를 맛보며 미식의 존재 이유를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IS** 글 이소영(사건 미술에 종사하다), 서울, 그 카페(타라) 저자

2016 F/W Trend Report

점점 더 과감해지는 장식적인 룩은 일상복과 얼마나 센스 있게 매치하느냐가 관건이니만큼 이번 시즌엔 디자이너들의 명민한 스타일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 화려해진 피어 아이템부터 벨벳의 귀환, 여전히 강세인 유머 가득한 스트리트 룩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트렌드 키워드 일곱 가지.

Trend 1 BACK TO VELVET

누가 벨벳이 올드하다고 했다가, 특유의 고전적인 텍스처와 광택으로 잊혀진 벨벳이 시크하고 화려하게 귀환했다. 벨벳을 소매, 칼라 등에 부분적으로 매치한 록맨만 아니라 롱 드레스, 블라우스, 스카트, 수트에 이르기까지, 다 노출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리는, 파리, 뉴욕, 런던 등 4대 패션 위크의 럭셔리 하우스 중 대 부분(앤디,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자참시, 랄프 로렌, 발렌티노, 랭방, 에트로, 스티라 매카트니 등)이 소재로 벨벳을 선택했다. 광택이 자르르 흐르는 부드러운 벨벳의 텍스처를 실러 실루엣은 대체적으로 드러나고 여성스러운 것이 특징. 하지만 유행이라고 해도 벨벳 특유의 화려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땐 렌디, 스티라 매카트니, 랭방 등에서 선보인 벨벳을 다른 소재와 믹스해 부분적으로 활용된 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Trend 2 GET IN UNIFORM

많은 디자이너들이 민중일자로 꼽은 이번 시즌 하나의 코트는 바로 해군에서 영감을 받은 밀리터리 코트다. 반짝이는 골드 단추, 카디란 포켓, 더블브레스트, 펠트 소재 등 해군 유니폼에서 따온 듯한 디테일을 다한 코트가 대거 등장한 것. 다소 남성적이고 강인한 디자인이지만,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슬림한 라인의 패턴을 더하거나, 허리를 강조한 벨트 디자인,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의 변형을 통해 보다 여성스럽게 재해석했다. 특히 코트 밖으로 화이트 코르셋을 묶어 연출한 프라다의 밀리터리 코트는 관능적 이기까지 하니, 더 이상 밀리터리 코트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셈.

Trend 3 SPORTY BUT CHIC

스포츠즘은 매 시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트렌드. 올림픽의 영향으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강세를 이뤘는데, 누가 봐도 아웃도어 의상이지만 이를 스포티하지 않고, 뻥하지 않게 스타일링한 디자이너들의 센스가 곳곳에서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아티스틱 디렉터 델라 바질리아가 처음으로 디렉팅해 수많은 스포트라이츠를 받은 발렌티노가 컬렉션에서는 포멀하고 여성스러운 룩에 어깨 라인을 드러낸 오버사이즈의 파카, 패딩 등을 매치해 스포티한 아우터도 세련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애슬레저 팬츠와 투빅한 트래킹 부츠를 메인 아이템으로 선보인 루이 비통은 클래식 선천에 미래 지향적인 스포티한 에너지를 주입해 신선하고 강렬한 스포티즘 룩을 완성했다.

Trend 4 ALL BLACK

오르 블랙부터 젯 블랙, 차콜 블랙, 블루 블랙까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블랙 컬러가 있다. 이를 증명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묘하게 다른 다양한 톤의 블랙 컬러를 총집합한 올 블랙 코디네이션이 강하다.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 칙칙한 고스 룩이나 장례식 복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올 블랙 코디를 올, 새틴, 벨벳, 가죽, 실크 등 다채로운 텍스처와 서로 다른 볼륨감으로 믹스해 단조롭지 않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 시크하고 티프한 여전사를 보는 듯 강렬한 올 블랙 룩을 선보인 루이 비통, 푹 떨어지는 핏의 테일러드 재킷과 팬츠로 미니멀한 블랙 룩의 진수를 보여준 질 샌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올 블랙 코디네이션을 제안한 발렌티노와 셀링느까지, 블랙 컬러의 다양한 변주에 주목할 것.

Trend 5 THE BROCADE WAY

다양한 시대를 넘나드는 트렌드 열차가 이번에 정차한 곳은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적인 로맨티즘이다. 휘황찬란했던 그 시절의 화려함은 런웨이에선 브로케이드 장식으로 부활했는데, 그 당시엔 티크한 기구나 커튼에서 그대로 따온 듯 빈티지하면서 금가루를 뿌린 듯 화려하고 귀족적이다. 금사나 은사를 이용해 자카드 원단 위에 페이즐리, 빈티지한 플로럴 모티프를 입체적으로 지수를 놓거나 레이스를 덧대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브로케이드는 코트, 재킷, 원피스, 스카트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변신했다. 이는 화려함을 중화해줄 데일리 웨어와 함께 연출하거나 다른 컬러와 패턴의 브로케이드를 접목해 더욱 화려한 맥스멀리즘을 표현한 룩으로 양분되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Trend 6 ARTFUL FURS

리얼 퍼, 페이크 퍼는 중요치 않다. 이번 시즌엔 퍼 특유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덜어내고 보다 젊은 감성의 아티스틱한 타치를 가미한 피어 아이템 OK인 진짜 밍크도 미치 인조 모피처럼 보일 만큼 스트리트적인 감성을 접목한 퍼 코트를 런웨이에서 대거 선보인 만큼 컬러와 텍스처, 디테일적으로 대담하고 화려한 변신을 시도한 퍼 제품을 과감히 즐겨볼 때다. 스트라이프, 지그재그의 그래픽 패턴을 행형색색의 파로 패치워크한 펜디와 살바토레 페라가모, 야생적이고 빈티지한 퍼로 럭셔리한 느낌을 더한 거친 스트리트적 요소를 강조한 루이 비통과 발렌티노, 레오파드 패턴의 퍼로 강렬한 오라를 발산한 자참시, 프라다, 모스카노, 드리스 반 노튼까지, 울겨 올 트렌디한 물결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 브랜드들의 스타일러시한 피어 아이템이 정답이다.

Trend 7 COUTURE KNITTING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의 영향으로, 실용적이지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식적인 룩이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더욱더 대방해지고 있다. 이는 울기를 니트웨어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인타르시아(상감 기법)로 패턴을 더하는 것을 넘어 니트 조각을 따라 입체적으로 수를 놓거나 비즈 장식, 크로세, 숄 장식 등 입체적인 디테일과 더불어 퍼, 실크, 가죽 등의 다른 소재를 믹스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쿠티르 니트웨어가 바로 그 주인공. 장식적인 디테일 외에도 풍부한 컬러 매치를 통해 해군 입어도 충분히 스타일러시한 니트 스웨터와 카디간이 주를 이루고, 셔츠와 함께 레이아웃할 수 있는 기성부터 손목을 덮고도 남을 만큼 긴 소매의 루스핏이 이렇기 드한 제품까지 다양한 실루엣으로 선보였다. 경쾌한 스카트는 물론 우아하고 클래식한 테일러드 팬츠에까지 멋스럽게 어울릴 니트의 활약을 기대해보자. 에디터 권유진



FABIANA FILIPPI

fabianafilippi.com

Hyundai / Main 02) 3438 6294 / Mokdong 02) 2163 1238 / Daegu 053) 245 2214 / Ulsan 052) 228 0252 / COEX 02) 3467 8582 / Pangyo 031) 5170 1238
 Shinsaegae / Gangnam 02) 3479 6287 / Gyeonggi 031) 695 1684 Galleria / East 02) 6905 3626 / Timeworld 042) 720 6287
 AK Plaza / Bundang 031) 8023 2217 Lotte / Avenuel World Tower 02) 3213 2305

New edition

손으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기법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은 남자들의 영원한 친구다.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손때 묻은 카메라처럼 평생을 함께할 기계식 워치 중에서도 올해 첫선을 보인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거 르플트르 라베르스 트리뷰트 듀오 1백60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새로운 라베르스 컬렉션. 1931년 오라자널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복잡한 빈티지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시간의 흐름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블루 컬러,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기묘세 장식까지 우아한 디테일을 가미했다. 1천4백만원대, 문의 02-3449-5912

가르피에 트라이브 드 가르피에 워치 독특한 유선형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가르피에의 새로운 남성 컬렉션. 스포티하고 경쾌하나 클래식한 매력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가르피에 매뉴얼 오토크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04-PS MC 칼리버를 장착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예거 르플트르 듀오미터 랑데뎀 루너 화이트 골드 케이스 사이즈 40.5mm에 자르미치 3백74개의 부품을 담고 있는 모델. 2016년 SIHH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했다. 달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담은 수공 해마일 문패이즈, 진동적인 인덱스로 장식한 아워 커운터, 각자 다른 에-치안을 보유한 듀얼 월 시스텔까지. 7개에 핸드의 인티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381을 장착했다.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부분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다이얼 하단을 오픈워크 처리한 것이 특징. 5천만원대, 문의 02-3449-5912

몽블랑 스타 로만 판타즘 컴플릿 카르네 대령 스페셜 에디션 풀 클린더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인 판타즘 컴플릿 워치로 요일, 일자, 달, 시, 분, 초, 문패이즈까지 많은 기능적인 워치다. 스페셜인스 스틸 케이스에 실버 화이트 칼리버 기묘세 다이얼, 레드 골드 도금한 워치캡, 로마숫자, 레드 골드 핸즈의 움직임이 아름답다. 6백36만원, 문의 02-2118-6053

브레게 트래디션 크로노그래프 인디펜던트 7077 2개의 독립적인 트레인을 장착해 파워 리저브를 위한 인디펜던트와 크로노그래프 리빙 인디케이터를 탑재했다. 7개에 브레게의 상징이 된 실리 콘 소재 브레게 스프링을 위한 '블런스 휠, 고전동 무브먼트인 Cal. 580DR을 장착했다. 2시 방향과 10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레드 로그라이드 핸즈는 파워 리저브와 크로노그래프 마를 표기한다.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 4천만원대, 문의 02-3438-6218

불가리 옥토프라네 솔로텔로 핑크 골드 베젤과 스크루, 인덱스와 핸즈만 핑크 골드로 처리하고 다른 디테일은 모두 강철한 블랙으로 마무리했다. 기계식 셀프와인딩 BVL 칼리버 193을 장착해 50시간 파워 리저브, 100m 방수 기능을 가졌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볼랑팡 발라네 컴플릿 캠퍼드 발라네 모델에 섀시 처리한 그레이 컬러 다이얼을 더해 더 우아하고 귀족적인 무드를 완성했다. 12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창을 통해 표시되는 일과 요일, 40원을 따라 나열한 날짜 표시, 6시 방향의 볼랑팡 고유의 문패이즈, 언더 리그 로케터, 72시간 파워 리저브까지 기계식 워치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모델이다. 3천만원대, 문의 02-6905-3367

파넬라이 루미노르 1950 3 데이츠 GMT 오토매틱 아자리아이오 아주 작은 변형판도 파넬라이 미니 아인 파넬라이스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이다. 42mm의 볼륨감 넘치는 케이스에 블루 컬러를 도입하고, 72시간 파워 리저브라는 강력한 기능을 갖춘 이 새로운 컬렉션은 등장함으로써 미니 아인들의 마음을 설하게 한다. 파넬라이 자체 제작 칼리버 P. 9001을 장착해 소리가치를 높였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9-5922 에디터 배미진

소품으로 사용한 카메라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이카 X 2백40만원대, 라이카 M 7백40만원대, 라이카 T 2백만원대 모두 라이카, 문의 1661-0405



www.hamiltonwatch.com



INTO THE DREAM



BROADWAY
AUTOMATIC SWISS MADE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BOUTIQUE 현대백화점 천호점 MONO STORE 롯데백화점 광복점 중동점
HOUR PASSION 롯데월드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동구점 대구점 디큐브시티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김해점 김천점 민교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노원점 대전점 동대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인천점 청량리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BUSAN JEJU SHILLA DFS SEOUL HDC JEJU
SHINSEGAE DFS MAIN INCHEON AIRPORT GALLERIA DFS 63 WALKERHILL DFS HONGDONG DFS

extra Fine

에센스를 넘어서는 효과를 내는 앰플, 피부 보약이라 불릴 만한 농축액, 가벼운 제형임에도 즉각적인 보습을 선사하는 비밀스러운 럭셔리 코스메틱 아이템. 뛰어난 효과를 지녔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싸여 있던 하이엔드 코스메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퍼어 인텐시브 리퍼리 앰플 클래시안 색상이 겔로 다시 태어났다. 고농축된 항산화 성분과 강력한 효과가 매력적이다. 평소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외부 자극에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필수 아이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긴 여행에도 이 플 개편으로 충분하다. 사이즈가 작고 사용이 편리한 데다 텍스처가 가벼워 비행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더욱 매력적. 60개, 18ml 17만8천원. 문의 02-3440-2772

랑콤 인슬리 텍스투레 로즈워 앰플 마스크 미치 캐비어 앰플 핑크빛이 아름다게 빛나는 랑콤의 새로운 플 마스크. 랑콤 장미 줄기 세포를 담아낸 특별한 생명력을 피부에 그대로 전달하는 제품으로 세럼 베이스 제품에 섞어 사용하면 된다. 세럼 베이스에 로즈 필 한스 을 담아 믹스해 얼굴 전체와 목 라인까지 바른 다음 5~10분 후 가볍게 아예면 된다. 30ml 53만원. 문의 080-001-9500

디올 프레스티지 르 베크타 가벼우면서도 풍부한 에센스를 담은 독특한 제형의 에센스. 민감한 피부를 위해 개발한 디올의 장미, 로즈 드 그랑블을 메인으로,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인티에이징 성분이다. 15년 이상의 연구 결과를 담았기에 더욱 믿을 만하다. 매끄럽고 탄탄한 피부,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알고 싶다면 꼭 경험해보아야 할 제품이다. 30ml 46만원. 문의 080-342-9500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 앰플에 충분한 휴식과 깊은 수분감을 전달하고 싶다면 이 새로운 제품에 주목해야 한다. 로션처럼 충분한 유효성을 담았지만 제형은 단, 방울만 사용해도 될 정도로 풍부하고 매끄럽다. 중기 중류법을 통해 추출한 캐비아 워터가 피부 투유 개선하는 것은 물론 탄력과 수분 공급에 즉각적인 효과를 선사한다.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미네랄이 풍부한 캐비아 성분에게 있어서 사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클렌징한 후 세럼 단계에 바로면 촉촉함을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다. 150ml 29만5천원. 문의 080-511-6626

클레드보 보에 라 크렘모 리뉴얼에서 새롭게 선보인 클레드보 보에의 기초 라인 라 크 크렘, 마백과 주름 개선 모두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텍스처와 파카지 디자인, 향기, 효과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포카와 진미, 지방 줄기 세포를 케어하는 진중 케어 제품으로 진피층의 탄력을 높여 페이스 라인을 슬러한다는 원리가 매력적이다. 비대한 진 얼굴 처형세포의 대사를 촉진해 얼굴 라인을 날렵하게 만들어주기에 꾸준히 사용해보면 만한 제품이다. 30ml 66만원. 문의 02-3438-6032

샤넬 수블리미지 텍스투레 그린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바닐라 플라-몰리아의 항산화 성분을 농축한 인티에이징의 정수, 재생과 회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아주 작은 양으로도 얼굴 전체에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 피부 보약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에센스의 농축 효과를 넘어, 에센스를 다시 한 번 농축했다는 개념을 담은 제품이다. 크림이나 세럼, 오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별다른 촉감을 지닌 독특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15ml 63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아모레퍼시픽 더 에센셜 크림 플루이드 최근 가장 신선한 제형의 럭셔리 라인 제품이 눈에 띄는데, 더 에센셜 크림 플루이드는 로션 라인에 크림의 풍부한 영양 성분을 더한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이다. 빠른 수력,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는 편안함을 위해 유수분 농도를 정교하게 조정했다. 쿼츠 팩트를 개발해 시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제품을 위해 독자적으로 도입한 뉴트라-팅 기술로 보습 영양 성분을 겹겹이해 끈적임 없이 빠른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보습감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90ml 11만원. 문의 080-020-5757 에디터 배미진



SKIN CAVIAR ESSENCE-IN-LOTION

the essence of caviar

신제품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을 소개합니다.

처음 만나는 캐비아 워터가 당신의 피부에 새로운 시작을 속삭입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캐비아의 에너지와 럭셔리하지만 혁신적인 스킨케어 솔루션.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완성해줄 스킨케어의 첫 번째 스텝. 잊을 수 없는 피부의 첫 경험을 남겨줄 새롭고 신선한 변화. 라프레리의 신제품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이 당신의 스킨케어에 새로운 서막을 알립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3438-6077 무역센터점 501-4420 목동점 2163-1152 천호점 2225-7156 판교점 031-5170-2120 부산점 051-644-9787 대구점 053-245-2135 울산점 052-228-0160 롯데백화점 본점 772-3130 잠실점 2143-7187 강남점 531-2156 분당점 031-738-2167 부산본점 051-810-3108 광주점 062-221-1151 신세계백화점 본점 310-5068 강남점 3479-1291 경기점 031-695-1667 센텀시티 051-745-2279 갤러리백화점 명품관 WEST 516-8881 타임월드점 042-720-6141 AK PLAZA 문당점 031-709-9742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253-6949

la prairie SWITZERLAND

수입원 : 라프레리코리아(유)
고객상담실 080-511-6626 / www.laprairie.com

fall in Colors

올가을, 더욱 대담해진 아이 메이크업은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당신을 더욱 근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시선을 머물게 할 깊이감이 느껴지는 색감과 다채로운 텍스처가 어우러진 2016 가을 잇 컬러 팔레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 중앙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스키 로즈 타일즈 나인 7.2g, 6인3천원 맥, 문의 02-3440-2782, 리가트로 옹브르 268 광도분 에 엑스페리엔스 2g, 7만7천 원 샤넬, 문의 080-332-2700, 옴브르 콰리트 까트리 315 모던 에라 6g, 10만 원대 클레드인 보타, 문의 080-564-7700, 컴플리트 아이 팔레트 골드 리미티드 NO.02 5.4g, 7만9천원대 바버리, 문의 02-3485-6539, 뉴욕 시티 아이 & 치크 팔레트 10.7g, 9만1천원 비비 브라운, 문의 02-3440-2781, 나스시스트 듀얼 안티타이거 팔레트 2.5g, 7만9천원 나스, 문의 02-6905-3747, 5 컬러 스킴아리엔트 3.4g, 8만7천원 디올, 문의 080-342-9500, 생 제르망 팔레트 8g, 8만9천원 쉐넬, 문의 080-001-9500, 꾸뛰르 팔레트 콜라트 소겐들 컬렉션 5g, 8만9천원 인센스로망, 문의 080-347-0089, 팔레트 5 컬러로 03 피르 도르 6g, 10만3천원 켈링, 문의 080-343-9500 에디터 이지엔

john varvatos

ARTISAN
 the aftershave collection



©2015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공식수입원 : (주)씨이오인터네셔널 | www.ceo.kr | 문의 : 080.363.5454

skin calming Solutions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8명이 '민감성 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붉어지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현상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다는 얘기가. 해결책은 화장품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것. 유해 성분을 모두 배제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민감성 피부를 위한 코스메틱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로슈포제 오 메르탈 중성세 기끼운 pH6.96의 프랑스 온천수를 담은 미스트. 균형 잡힌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기쁘게 한다. 트러블이 심할 때 미스트를 화장실에 들락 문혀 빠른 진정 효과를 볼 수 있고 건조한 물에 수시로 뿌려주어도 좋다. 150ml 1만6천원. 문의 080-344-0088

샤넬 라솔루션10 수백 가지 성분 중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단 10가지 성분만 엄선해 만든 민감성 피부용 모이스처라이저. 중구의 향자로 불리는 백차 기운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질버 나들 티 성분을 함유해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30ml 12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스킨슈티랩즈 피토 코메티브 자극받고 붉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부 톤을 한결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선향한 플루이드 타입의 민감성 피부용 세럼. 피부과, 상형외과, 메디스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으로, 진정 효과가 탁월한 오이와 타닌 성분을 함유해 극도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0ml 7만8천원. 문의 080-348-0086

듀크레이 케라크닐 PP 크림 프랑스에서 화농성 여드름 피부를 위한 처방 제품 중 1위를 차지한 스킵 트리트먼트 크림. 피부 트러블의 주원인인 비오 필름에 직접 작용하는 미르타신과 비타민 PP 성분을 함유해 붉게 올라온 트러블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특징. 30ml 9만5천원. 문의 1899-4802

올가이드 N°1 크림 일루에 베라, 헤이즐넛 오일, 올리브 등 96%가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민감성 피부를 위한 데이 & 나이트 크림. 피부의 수분 공급 능력을 144%까지 증대시켜 메마른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한다. 더불어 각종 비타민 성분이 본연의 밸런스를 회복시켜 피부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킨다. 50ml 8만5천원. 문의 02-3448-4545

아벤스 CPI 스킨 라카리크 크림 특허 열균 용기를 사용해 단 1%의 방부제도 함유하지 않은 무방부제 진정 크림. 독특한 열균 패키지로 보존, 살균제 없이도 차열과 동일한 포콜리를 유지한다. 피르세린을 함유해 피부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아벤스의 온천수를 담아 붉어지고 가려운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킨다. 50ml 2만1천원. 문의 1899-4802

아더마 데말리부+ 크림 레파리트리스트 잿은 염증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쉽게 붉어지고 각질도 도드라지는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연고 타입의 SOS 크림. 4월 만에 염증 완화 효과를 입증한 유방염 보조 치료제로, 트러블 제거, 혹은 레이저 시술 후 사용하면 빠른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 50ml 2만1천원. 문의 1899-4802

스킨슈티랩즈 레드니스 뉴트랄라이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는 피부를 위해 특수 개발한 가벼운 텍스처의 수딩 크림. 뉴로메드 콤플렉스 성분이 피부의 예민 반응을 진정시키고, 비타민 E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를 보호한다. 또 사이바라와 글리세린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에 부드러운 보습력을 형성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준다. 50ml 11만원. 문의 080-348-0086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Mercedes-Benz Parfums.

The new Cologne for men.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Mercedes-Benz



POWERFUL MINI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칼라캐비닛 K-룩키 스타드 스몰 크로스 백** 백 특색 뛰는 스타드, 벨, 펠 모티브로 화려하게 장식한 룩 시크 무드의 미니 크로스 백, 17.5X12cm 50만원, 문의 02-3443-2016 **바버리 패치워크 백** 하우스 체크 원단, 광택감이 도는 벨 가죽, 스웨이드 등 다양한 원단을 패치워크 형태로 혼용한 디자인이 유니크하다. 기타 밴드를 연상케 하는 넓은 스트랩에서 핑카함이 느껴진다. 19.5X12.5cm 3백20만원, 문의 02-3485-6600 **에스카다 ML40 백** 브랜드 탄생 40주년 기념 에디션 백, 모던한 토트백 디자인에 골드 비즈, 가죽 리본 디테일을 더해 에스카다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0X17.5cm 1백20만원대, 문의 02-3442-5760 **패라카모 에일린 백** 스타디얼로 아이 램프인 에일린 백에 특색 뛰는 세련된 컬러 블록을 더해 보다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정교한 영색 공정을 가진 꽃잎 모양 패치워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25X15.5cm 2백40만원대, 문의 02-2140-9664



BIG TOT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셀린노 트리플 토트 백** 세 가지 수납공간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인 우아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의 토트백, 내부 수납공간을 세 구역으로 분리해 소지품을 체계적으로 수납할 수 있고, 양쪽에 달린 긴 끈을 서로 묶으면 세이프를 사각형으로 변형할 수 있다. 47X26cm 3백97만원, 문의 02-540-0486 **마이클코이스 머서 백** 고급스러운 그린 컬러, 미니 달걀 디자인, 부드러운 패들 레더와 사피아노 패턴의 PVC를 접목해 독창적인 고급스러움을 담은 토트백, 32X25cm 69만원, 문의 02-3479-1852 **비오비오 크리스탈 글로스** 입체적인 3D 세이프가 감각적인 토트백, 내부 고리를 연결해 또 다른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다. 40X28cm 1백45만원, 문의 02-6905-3531

get the New

이미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 드레스 룸 선반을 가득 채웠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의 가방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특히 실용적이면서 유니크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의 뉴 백이 쏟아지는 이번 시즌이라면 더더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OINTED STRAP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팬디 닷컴 클릭 백** 가방 안에 분리되는 클러치 형태의 파우치가 들어 있어 카페나 파티나 가벼운 외출 시 따로 꺼내 들 수 있는 일석이조 토트백, 25X20cm 3백89만원, 스트랩 1백89만원, 문의 02-2056-9022 **프라다 비벨리오백** 시피아노와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을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플라워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스트랩이 클래식한 가방에 트렌디한 타치를 더한다. 28.5X22cm 3백70만원대, 스트랩 1백10만원대, 문의 02-3218-5331 **칼프코렌 소프트 리키 백** 칼프코렌의 상징적인 가방 나기 백을 보다 부드러운 세이프로 재해석한 가방으로, 이탈리아산 스웨이드 소재와 주얼 장식의 스트랩을 더해 더욱 세련되고 트렌디한 모습으로 선보인다. 26X20cm 2백65만원, 스트랩 1백90만원, 문의 02-545-8200



MODERN CLASSIC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엘보르 워킹 백** 1962년에 디자인한 엘보르 사스레스 백에서 영감을 받은 슬더백, 부드러운 반달 모양과 미니 달걀 버클 장식이 매력적으로, 코트 스트랩을 매치해 편안한 휴대성과 활동성을 자랑한다. 25X21cm 4백50만원, 문의 02-3449-5916 **에르메스 콘스탄스 백** 기존 콘스탄스 백의 상징인 H 로고스트랩은 그대로 살리되, 옛날 자동차의 캔버스 덮개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재해석한 콘스탄스 백, 선명한 오렌지 컬러의 격자 패턴이 감각적이다. 23X19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토즈 더블 T 백** 양중맞은 미니 사이즈지만 더블 T 형태의 베젤과 워킹 디테일, 가죽 태슬 장식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체인 슬더백, 22X15cm 2백70만원대, 문의 02-3438-6008 에디터 **권유진**

화보에 등장한 오렌지, 옐로 컬러 의자는 모두 **보관성**.



“타고난 자질만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배우도, 완벽에 가까운 연기도 탄생되는 것 아닐까요? 함께 했던 사람, 사물, 시간들과의 모든 경험을 작품 속에 투영해야 합니다. 외면의 카리스마만큼 내면에 충실을 기하는 일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외관 뿐 아니라 매일 더 효율적이고 더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는 BMW 뉴 7시리즈는 연기에 대한 저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제가 BMW 7 SERIES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A GENTLE TOUCH

(왼쪽부터 차례대로) **미라임 셸퍼 알테스 백** 2개월가량 전통 태닝 과정을 가진 아주 귀한 오스트리아산 오데사 송아지가죽을 사용했다. 심플한 실루엣과 브랜드의 시그니처 버클 장식으로 미니멀 럭셔리한 진수를 보여준다. 39X32cm 9백49만원대, 문의 02-6905-3318 **에르메네제오 제나갈레 테스타 듀에트 비즈나스 백** 부드러운 나뭇가죽을 실처럼 얇게 가공해 얇아 마치 페넬라가죽 보이는 펠레 테스타 가죽으로 만든 토트백, 캐시미어에 견줄 정도로 부드러운 감촉과 자연스러운 광택이 특징이다. 38X28cm 2백88만5천원, 문의 02-3453-2287 **토즈 엔벨롭 백** (envelope) 70 리터 0 리터에서 엮을 수 있도록 봉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 전통적인 서류 가방을 재해석해 가방 덮개 부분을 밖으로 빼거나 안으로 넣는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45X32cm 2백70만원대, 문의 02-3438-6008 **몽탈랑 마이스터스틱 도큐먼트 케이스 슬림** 매끈한 광택이 느껴지는 버건디 컬러의 스가죽 도큐먼트 케이스. 가방 내부에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지퍼 포켓, 휴대전화 포켓, 필기구용 포켓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타일을 정리하기에 편리하다. 38X28cm 1백68만원, 문의 1670-4810



Fit the case

의자 위에 무심코 놓인 남자의 가방에 자꾸만 시선이 머문다. 여자도 탐할 만한 멋과 실용성을 갖춘, 2016 F/W 남자를 위한 신상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ERBIA E SHIP
 ITALY E SHIP
 RIMON STARBUCKS E SHIP
 의자 촬영: 에이홍순(02-3785-0860)

LUXE AND EASY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알리오 백**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비행기 짐칸 크기에 맞게 디자인한 사이즈, 실용적인 납작한 주머니와 수납공간이 특징인 송아지가죽 토트백. 36X26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펜디 셸라리아 토트백** 펜디에서 선보이는 남성 토트백. 상징적인 셸라리아 가죽을 사용했으며 이모터본에서 영감을 받은 얼굴 표정 모티브가 유머러스하다. 와이드한 사이링 퍼플 트리플 스트랩을 함께 매치하면 그 매력은 배가 된다. 40X32cm 3백36만원, 스트랩 1백60만원, 문의 02-2056-9023 **구찌 펠 에-니얼리에 백** GG 패턴의 수프림 캔버스 위에 그린, 레드 스트라이프의 펠 디테일, 유니크한 벨 모티브 자수 패치를 더해 트랜디한 감성이 느껴지는 토트백. 39X32cm 3백63만원, 문의 1577-1921 **루이 비통 인스플로러 백백** 과거 루이 비통 우편물 트렁크의 감정 가죽에서 영감을 받은 백백으로, 이모터본의 모노그램 캔버스를 무채색으로 도톰하게 재해석해 남성적인 느낌을 더했다. 전형적인 백백 디자인이 아닌 복주머니처럼 부드럽게 조여지는 세이프가 유니크하다. 50X36cm 3백만원대,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권유진**



화보에 등장하는 의자는 모두 에이홍순.

THE ALL-NEW BMW 7 SERIES. DRIVING LUXURY.

The all-new BMW 7 Series



Sheer Driving Pleasure

bmw7series.co.kr



BMW EFFICIENT DYNAMICS.

750Li xDrive 8.4km/l 450hp

BMW 커먼리퀴어션 센터 (080) 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 **장부 공인 표준 연비 및 총급 BMW 750Li xDrive** 배기량 2,999cc, 공차중량 2,015kg, 차동 8단, 복합연비 9.7km/l (도시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1.9km/l) 복합CO₂배출량 179g/km, 4등급 **750Li xDrive**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159kg(4인승)/2,145kg(5인승), 차동 8단, 복합연비 8.4km/l (도시연비 7.1km/l, 고속도로연비 10.6km/l) 복합CO₂배출량 209g/km, 5등급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은 해당 시장의 예시이며, 모델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은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WINNER
2016 WORLD CAR AWARDS
WORLD LUXURY CAR

자세한 정보는 BMW 7 Series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bmw7series.co.kr



Bon Voyage

여행을 떠날 때도, 스포츠를 즐길 때도 이보다 더 좋은 백은 없다. 당신의 여행길에 동반자가 되어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수납력을 갖춘 보스턴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패션의 완성도는 의외로 작은 디테일에서 판를 낸다. 고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자아내는 보스턴백은 여행의 품격을 높여줄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출장을 자주 가는 이들이라면 편한 착용과 캐주얼한 스타일을 한껏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백으로도 제격이다. 여기 7개의 멋진 보스턴백을 보기도 여전히 망설일 것인가?

맨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상아색 오버 스타일링 플리드 백, 45x37cm, 1천원 이하에 **이벤트**스, 문의 02-544-7722, 카무라리주 패의 키 홀백, 45x27cm, 2천원 이하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스페이드 스웨이드 사각 더블 백, 49x29cm, 가격 미정 **보이 배너**, 문의 02-6905-3791, 파란색 라이닝으로 포인트를 준 더블 백, 45x24cm, 3천200원 이하에 **다들**, 문의 02-513-0300, 배이지 컬러의 라커 장백 인스프루트 백, 49x25cm, 가격 미정 **코치**, 문의 02-3446-1941 (초콜렛 라이닝), 인공레더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의 샷츠 버틀리 백, 28x23cm, 5천200원 이하에 **아틀포드**, 문의 02-6905-3534, BHZ디 색상과 나란한 백, 50x28cm, 5천300원 이하에 **기론**, 문의 02-6905-3787 **에터 아덴**

약12km
국제영어도시 ↔ 씨사이드아덴
국제영어도시 등하교 학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제주 바다의 끝없이 펼쳐진 여유를 품다

중문 바다와 한라산 ... 제주를 즐기며 휴식하다 - 씨사이드 아덴

아름다운 풍경에 품격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중문바다와 한라산을 리조트 안팎으로 오롯이 담아낸 고품격 주거형 리조트 씨사이드 아덴, VVIP 고객을 위한 제주도 최고의 입지에 풀빌라형 리조트 -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휴식의 이상향을 만들어갑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aside Arden
분양문의 1899.1997



한라산의 크고 작은 곡선에서 영감 받다



A FANTASTIC MAN

오랜만에 진짜 남자를 만났다.
드라마 <판타스틱>으로 돌아온
배우 주상욱의 치명적인 매력을 포착했다.
photographed by zo sun hi



사선 스트라이프 패턴을 기미한
니트 톱 **밴디**, 화이트 셔츠
에르메네즈조 제나, 다크 네이비 컬러
팬츠 **실버트레 페라기오**, 스웨이드 소재의
심플한 로퍼 **쥬세메 자노티**.



화사한 느낌을 선사하는 레드
칼리 롱 코트 **디올 울프**, 화이트
칼리 니트 톱 **앤디앤덤**, 편안한
실루엣의 핀스트라이프 팬츠
브루넬로 쿠치넬라.



클래식한 블루 컬러 티셔츠,
니트 폴오버 커스텀 헬로우,
글렌 체크 패턴 팬츠, 드리스 반 노트,
차콜 그레이 컬러 레더 로퍼 토츠.



브라운과 블랙을 배색한 칼로가
표인티인 코트 랭방 by 무이, 포켓
디테일의 카키 컬러 셔츠, 드리스 반 노트,
실루엣이 간결한 다크 네이비 컬러 팬츠,
신뜻한 오렌지 컬러 퍼플 트리밍한
슈즈 모두 심비토레 페라기오,
브라운 가죽 스트랩의
글레드 까르파에 워치 까르파에.



정교한 다이아몬드 패턴이 멋스러운
네이비 컬러 패딩 재킷, 고급스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그레이 컬러 팬츠 모두
에르메스에서도 찾아. 미니멀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볼가리 볼가리 워치 볼가리.



바건디와 스카이 블루 컬러로
완성된 그래픽적인 패턴 니트 프라다.
체크 패턴 슈트 브루넬로 쿠치넬리.
스웨이드 소재의 레이스업 슈즈
살바토레 페라기오.

차분한 블랙 컬러가 시크한
터틀넥 니트 톱, 블랙 컬러
팬츠 모두 보타가 베네타.
클래식한 사각 프레임의 탱크
MC 워치 까르띠에.



금색한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더블브레스트
올 캐시미어 코트 바버리,
심플한 블랙 컬러 팬츠
에르메네집도 제나.



헤어 강형(소수)
메이크업 환한재(소수)
리빙 스타일리스트 조은정
스타일리스트 구동현
캐스팅 디렉터 김우리
에디터 권유진

팬디 02-2056-9022
에르메네집도 제나 02-518-0285
살바토레 페리니 02-2140-9666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디올 옴므 02-513-0300
앤드레아레 02-310-5153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카스틸 엘로우 02-3213-4213
드리스 반 노튼 02-310-5307
토즈 02-3438-6008
무이 02-3446-8074
까르띠에 1566-7277
볼가리 02-2056-0171
프라다 02-3442-1830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바버리 02-3485-6536



(왼쪽부터) 정교한 백케이스가 돋보이는 RM 07-01 ATZ 화이트 세라믹 모델. 5N 18K 7면 황금 로타리 장작터와 고속 회전하는 베럴의 외안경을 최적화 시켜준다.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RM 037 블랙 세라믹 모델. 다이얼 중앙에 선명한 레드 칼러 자스퍼를 세팅한 RM 07-01. 화이트 세라믹과 다이아몬드 세팅의 조화가 아름다운 RM 07-01.

mechanical Perfection

강렬한 스포츠를 위한 강력한 리차드 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와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리차드 밀의 공통점은 뚜렷하게 두드러진다. 최고만을 추구한다는 것, 확실한 결과로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점. 세계적인 골프 선수 크리스티 커, 다이아나 루나는 리차드 밀 여성 워치의 앰버서더이며 실제로 골프 경기 중에 리차드 밀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 사실 정교한 하이엔드 기계식 시계를 경기 중에 착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놀라운 브랜드는 이를 실제로 이루어냈다. 사실 시계의 외형만 본다면 리차드 밀은 매우 강렬하고 모든 스포츠에 적합하리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시계가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스위스의 고전적인 파인 워치메이킹 시스템을 통해 하나하나 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도를 견뎌야 하는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기록을 위한 시계가 아닌, 운동선수의 손목 위에서 함께 경기를 펼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착용하지 않을 때는 시계 케이스 안에 고이 모셔야 하는 고급 시계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워치 세계에서 리차드 밀의 이 엄청난 업적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 이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리차드 밀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르며으로써 더 크게 화제가 되었다. 테니스의 황제 라파엘 나달에 이어 아름다운 2명의 골프 여제 역시 실제 경기에서 리차드 밀의 워치를 착용했기에 보다 완벽한 시계를 위한 리차드 밀의 열정이 어느 지점에까지 다다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충격을 완화하는 정교한 무브먼트와 항공 분야, 혹은 우주선에 사용한다는 견고한 합금 소재가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워치를 살아 숨 쉬게 한다. 리차드 밀이 주로 사용하는 시계의 소재를 나열해보면 카본 나노피이버, 티탄, 고강도 티타늄 등 기존 시계 개발 분야에서 쉽게 적용하지 않는 한 치인 높은 소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스포츠 경기에 직접 착용하는 워치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리차드 밀만의 고품질 세라믹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리차드 밀에서 가장 널리 활용하는 소재인 그레이트 5 강도의 티타늄처럼 견고하고 가벼운 세라믹 역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을 위

한 시계에 다양한 요소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워치에 세라믹을 도입하는 시도 는 가벼움과 강렬함, 아름다움을 함께 선사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비주얼은 여성 워치에 더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기에, 이 시계들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이 난다.

RM 037 레이디스 워치

리차드 밀의 여성용 타임피스 시리즈는 수공업에 기반한 고급 시계의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남성용 타임피스인 RM 037 모델을 재해석해 첫선을 보인 레이디스 워치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이다. 경주용 자동차, 우주선 등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창업자의 취향에 따라, 리차드 밀에서는 단 하나의 시계를 만들더라도 더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한다. CRMA1 칼리버를 장착한 이 모델은 시와 분, 그리고 인상적인 오버사이즈 날짜 표시 기능이 매우 그래픽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50시간 파워 리저브, 그레이트 5의 티타늄 소재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를 담고 있다. 10시 방향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날짜를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4시 방향에 있는 푸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마치 자동차의 변속기처럼 와인딩, 시간 설정, 혹은 중립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레드 골드, 화이트 골드, 티타늄 케이스와 화이트 세라믹, 블랙 세라믹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사진 속 제품은 강렬한 느낌을 주는 블랙과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의 RM 037 레이디스 워치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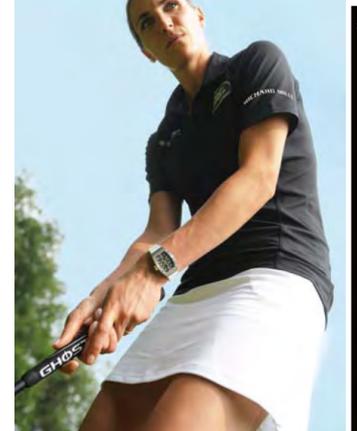
전통적인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가치와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여성 스포츠 세계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크리스티 커, 다이아나 루나까지, 파워풀한 골프 여제들의 손목에 채워진 리차드 밀(Richard Mille)의 정교한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RM 07-01 레이디스 워치

리차드 밀의 시그니처가 된 토노(tonneau) 형태의 워치 케이스에 여성들이 열광할 것이라고는 시계 전문가들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 본래 편안한 착용감과 독창성을 위해 리차드 밀이 고집한 디자인으로, 정교한 각도로 완성해야 하기에 엄격한 기준하에 제작된다. 지금 리차드 밀을 사랑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 케이스를 가장 큰 매력으로 꼽고 있으니 독특한 매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탄탄한 볼륨이 느껴지는 케이스 디자인, 정밀하게 고안한 스크루의 리드미컬한 배치, 브랜드 고유의 정교한 기술력과 우아함, 기계식 시계와 강렬한 디자인의 조화까지 최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보석 세팅을 접목해 보다 아름다운 자태로 완성한 RM 07-01 레이디스 워치는 시간과 분을 표기하는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5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완성도 높은 기계식 워치다. 다이얼 중심에 페턴을 넣어, 시각적으로 인상적이다.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것도 리차드 밀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그레이트 5 티타늄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는 견고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신기술인 가변 지오메트리 로터는 착용하는 사람의 활동 수준에 맞게 와인딩의 정도가 조절된다. 이 워치의 무브먼트인 CRMA2 칼리버에도 이 로터가 장착되어 있어 시계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광선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프리 스프링 밸런스 와 새롭게 개발한 기어 톱니까지 더해 더욱 견고함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케이스는 견고한 ATZ 세라믹, TZP-Z 갈색 세라믹, 케이스 밴드는 레드 골드, 혹은 화이트 골드 및 다양한 보석 세팅이 된 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2230-1288 에터나 메진



1 세계적 여성 골퍼 크리스티 커, 라트드 일과 오랜 인연들 맺고 있다. 2 30이 넘는 최상의 여성 골퍼 다이아나 루나가 리코스테 레이디스 오픈에서 착용한 RM 007 티타늄 모델.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론)
 몽블랑 4810 오르비스 티라늄,
 몽블랑 4810 트윈클로이
 크로노그래프 110주년 에디션,
 몽블랑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몽블랑 보헨 데이 앤 나잇,
 보헨 타이트 오토매틱 주얼리.



an eternal Classic

브랜드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시계업계에서 인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몽블랑. 장인 정신과 개척 정신, 감각적인 비전을 담은 몽블랑의 워치 컬렉션이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대한 꿈을 지닌 남자를 위한 몽블랑 4810 컬렉션

꾸준히 늘려온 기술을 도입하며 스위스 기계식 시계 발전사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몽블랑의 워치 컬렉션. 한 세기를 넘긴 몽블랑의 역사에서 도전 정신과 선구적인 비전의 제시는 운명적인 일이었다고, 이는 대서양 횡단 역사의 황금시대를 기념하는 몽블랑의 대표 남성 워치인 4810 컬렉션의 테마와 이어져 있다. 1906년 개척 정신 하나로 의기투합한 3명의 청년, 엔지니어 아우구스트 에버슈타인(August Eberstein)과 은행가 알프레드 네헤미아스(Alfred Nehemias), 사업가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Claus Johannes Voss)는 잉크가 새지 않는 피스톤 컨버터를 장착한 필기구를 개발했고, 이것이 몽블랑의 시작이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일겠지만 당시 완벽한 품질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드물었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딴 몽블랑(Montblanc)의 역사는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몽블랑 정상의 높이인 4,810m에서 영감을 얻은 이 남성 워치 컬렉션은 몽블랑의 시작이자 궁극의 의미이며 브랜드의 잠재적인 가치를 설명한다. 시각적은 물론, 기계적으로도 새로운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선보이며 시계업계에서 혁명적인 행보를 보이는 몽블랑의 4810 시리즈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엑소투르비용을 장착했음에도 더 얇아진, 4810 엑소투르비용 슬림 워치. 이제 몽블랑 하이컴플리케이션 워치의 상징이 된 엑소투르비용은 투르비용 케이스의 무게를 최소화한 덕분에 밸런스 휠이 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성 있게 구동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이얼 디자인과 투르비용의 빠른 움직임만으로도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이 워치의 백미는 무브먼트를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는 백 케이스다. 몽블랑을 대표하는 엑소투르비용을 장착한 MB29.21 엑소투르비용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더 안정적인 시간 구현을 위해 코트 드 주네브(Côtes de Genève) 부채꼴 모티프로 장식한 새로운 마이크로 로터를 탑재했다. 불과 4.5mm에 불과한 두께에 엑소투르비용을 장착하고, 로터의 크기까지 최소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초 단위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무브먼트를 바로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인 퀵스톱 세컨드 메커니즘을 적용했다는 것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듯 많은 것을 담은 시계의 모든 기능을 3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으로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반전이라 할 만큼 매력적인 요소다. 모든 4810 컬렉션은 일상생활에서 시계에 가해 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적용해 총 5백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몽블랑 5백 시간 테스트'를 필수로 거친다는 점도, 시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몽블랑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을 위한 몽블랑의 우아한 제안, 보헨 컬렉션

2014년 처음 출시한 몽블랑을 대표하는 여성 워치, '보헨(Bohème)' 컬렉션은 등장만으로도 센세이션얼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우아함을 담은 매력적인 디자인, 유니크한 다이얼 배치는 기계식 시계를 선호하는 여성은 물론 보석을 사랑하고 몽블랑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클래식한 기호세 패턴과 몽블랑의 스타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핸드, 매혹적인 플로럴 아라비아숫자 인덱스가 어우러져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 것. 1백 년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까지 보헨 컬렉션에 추가해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컬렉션을 론칭한 이듬해인 2015년 선보인 '문 가든'과 '데이 앤 나잇'은 아름다운 것은 물론 고성능 컴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 특히 가장 각광받은 모델은 빌레레에 위치한 몽블랑 매종의 무브먼트 & 이노베이션 엑셀런스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고성능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탑재한 '몽블랑 보헨 문 가든'. 형태를 바꾸는 달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 시계 다이얼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기능을 더했다. 다이얼 중앙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창에 달의 이름이 나타나고, 6시 방향의 문패이지를 통해 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독특한 매뉴팩처 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개별 코렉터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고, 아이스문(Ice Moon), 오크문(Oak Moon) 등으로 명명한 12개 달의 이름이 시계 뒤쪽에 원형으로 새겨져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보헨 문 가든에 이어 보다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보헨 데이 앤 나잇'은 낮과 밤, 날짜를 표시해 비즈니스 위치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제격이다. 시간에 따라 일출과 일몰을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고, 72개의 웨스턴 다이아몬드 브레젤을 풀 세팅해 더욱 클래식하다. *에디터 배미진*



1 몽블랑 4810 엑소투르비용 슬림 모델에 장착된 MB29.21 무브먼트.
 2 12개의 새로운 달 이름이 담겨 있는 보헨 문 가든. 블루와 그레이 두 가지 컬러 스트랩이 인상적이다. 3, 5 보헨 퍼페추얼 캘린더 스퀘어와 심재 양자의 모습.
 4 몽블랑 4810 엑소투르비용 슬림 110주년 에디션. 6 몽블랑 4810 엑소투르비용 슬림.
 7 2015년 출시한 보헨 데이 앤 나잇 스타 브레이슬릿 버전.

네이버 니트 원피스와 블랙 캐시미어 머플러 모두 델라라나.



Luxurious addiction

온몸을 휘감는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 등 울기를 캐시미어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이탈리아산 캐시미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신세계백화점이 소개하는 이탈리아 감성의 프리미엄 캐시미어 브랜드 '델라라나(Della Lana)'를 통해 정통 캐시미어의 가치에 충실한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전통과 피렌체의 정신을 담은 델라라나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난 캐시미어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소재다. 특별한 디테일이 없어도 소재 하나만으로 충분히 멋스러운 캐시미어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오래 두고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섬유질의 질이 낮으면 한 계절만 입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캐시미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이상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캐시미어를 우리보다 일찍 입기 시작한 유럽에서는 잘 관리한 부모님의 캐시미어 니트를 물려받아 입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한 해 캐시미어 제품이 술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캐시미어의 인지도가 높은 것에 비하면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보통 캐시미어라 하면 고급스러운 소재라는 것만 아는 정도이고, 캐시미어의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 캐시미어는 인도 서북부 카슈미르(Kashmir)에 서식하는 산양에서 얻은 모사를 사용해 농직(무늬를 비스듬하게 짜는 것)한 섬유를 말하며, 그 이름 또한 카슈미르라는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캐시미어는 생산지와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종류와 굵이 나뉘는데, 웰리티가 가장 높은 것은 계절 간 온도 차이가 크고 환경이 척박한 지역에 사는 염소의 솜털이다. 캐시미어 염소는 보통 이중 털로 자신의 체온을 보호하는데, 물과 열에 강한 겉털(outer guard layer)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솜털(undercoat)로 구분된다. 바로 이 솜털로 캐시미어를 생산한다. 하지만 이 캐시미어는 염소의 털갈이 기간에만 빗질해 모아 사용하기 때문에 채취량이 극히 적다. 스웨터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선 평균 300g의 캐시미어 솜털이 필요하지만, 연간 캐시미어 염소 한 마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양은 고작 150g 정도다. 그만큼 캐시미어는 희귀한 섬유이고, 제조 과정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섬유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은 패션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고객의 높은 안목에 걸맞은 최상의 소재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하기 위해 전문 캐시미어 니트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한다. 바로 최상의 웰리티와 캐시미어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캐시미어 니트 브랜드 '델라라나'. 델라라나는 이탈리아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담기 위해, 12세기부터 발전한 최초의 양모 길드이자 이탈리아 피렌체의 21개 길드 중 가장 큰 모직의 류상 조합인 아르테 델라라나(Arte Della Lana)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탈리아에서 캐시미어 원사를 방적해 'Made in Italy' 라벨을 부착한 델라라나의 제품은 캐시미어의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에 고급스러움을 더할 화이트와 베이지 등 어스 컬러로 출시하며, 30~40대의 다양한 여성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라인으로 전개된다. 캐시미어 소재 특유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니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절제된 우아함에 섬세한 터치를 가미해, 여성스러운 디테일을 추가한 클래식 라인과 럭셔리 라운지 웨어, 그리고 트렌디한 실루엣을 반영한 컨템퍼러리 라인으로 선보이며,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탈리언 캐시미어의 헤리티지를 잇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양질의 캐시미어는 10년도 넘게, 2백 번 이상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지속성이 높다. 물론 전제는 우수한 품질의 캐시미어와 제대로 된 관리다. 앞의 글을 통해 캐시미어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과 안목을 익혔다면, 이제는 웰리티 높은 캐시미어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둘 차례다. 사실 아무리 값비싼 캐시미어라도 보풀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최고급 캐시미어 브랜드로 손꼽히는 몇몇 브랜드 제품도 마찬가지. 보풀이라는 것은 섬유끼리 마찰하

면서 동그랗게 뭉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도구를 통해 보풀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첫 번째 세탁할 때는 드라이클리닝을 이용하길 권장하며, 세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 세탁을 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울 샴푸를 풀어 손으로 살포시 눌러 세탁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비틀어 짜지 말고 마른 타월을 이용해 꼭꼭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 오래 입을수록 그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캐시미어 제품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이 되어 줄 것이다. 문의 02-310-1708 **에디터 이지연**



1 골드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캐시미어 카디건. 2 코코아 베이지 컬러와 라이트한 핑크 핏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와이드 맨초.

얇고 가벼워 레이어링 스타일링을 연출하기에 적합한 그레이 울오버 니트 델라라나.



환경기에 간편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울오버 니트 원피스와 카디건 모두 델라라나.



인강에 패딩 소재를 덧대 보온과 스타일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캐시미어 패딩 장미 델라라나.



키프트 부분에 슬릿 디테일을 가미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그레이 울오버 니트 델라라나.

Perfect dream skin

베이스 메이크업의 강자, 디올이 브랜드의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아 선보이는 최초의 쿠션 팩트. 피부에 닿으면 피부 본연의 톤과 가장 유사한 컬러로 연출하는 '드림스킨 퍼펙트 스킨 쿠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K-뷰티의 비밀을 뚫어냄을 또 하나의 쿠션

해외 출장길에서 한국 프레스들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 바로 K-뷰티다. 공통적으로 한국 프레스들은 어떤 코즈메틱을 사용하는지, 보통 화장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한국 여성들의 평균 화장 시간은 15분 전후, 프레스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쿠션 팩트'처럼 간편하며, 완벽한 제품은 없다고. 그렇다. 쿠션 팩트는 한국 여성들의 평균 화장 시간을 단축해준 가장 창의적인 뷰티 발명품이며, K-뷰티의 위상을 높여준 유일무이한 아이템이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 이제는 국내 뷰티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뷰티 하우스까지 쿠션 팩트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쿠션 팩트 역사의 제2막이 열렸다고 불리는 지금, 세계적인 코즈메틱 브랜드 디올도 이러한 한국의 뷰티 리추얼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 최초로 쿠션 타입의 팩트를 선보인다. 깃털처럼 가벼운 텍스처와 닷바를수록 완벽하게 모공을 메우는 효과, 윤기 나는 마무리감은 물론, 디올의 스킨케어 과학을 담은 첫 번째 쿠션, '드림스킨 퍼펙트 스킨 쿠션'이 그것. 이 제품은 쿠션에 익숙한 아시아 여성을 위한, 디올만의 테크놀로지과 전문성으로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포뮬러를 주입해, 하루 종일 산뜻한 텍스처를 유지하며 피부에 활력을 선사할 것이다.

한 번의 터치만으로 변화된 피부 톤을 경험하다

디올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드림스킨 퍼펙트 스킨 쿠션은 결코 하나의 케이스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요소를 한 가지 제품 안에 담아냈다. 먼저, 디올의 독자적인 아우아 텍스처는 터치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피부에 스며들어 진정 효과와 수분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이 혁신적인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디올 사이언스는 론고자와 오펜리야를 선택했다. 예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여겨져온 론고자는 마다가스카르의 디올 가든에서 재배하는 오렌지 레드빛 과일이고, 부르키나파소 디올 가든에서 재배하는 오펜리야는 피부 톤의 균형을 담당하는 성분이다. 이미 디올의 베스트셀러 스킨케어 제품인 드림스킨의 핵심이기도 한 이 성분들은 주름과 다크스팟, 피부의 붉은 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 텍스처는 발림성 또한 뛰어나다. 놀랍도록 가벼우며,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피부 톤을 균일하게 보정해준다. 그 때문에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은은한 광이 차오른 고급스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디올 사이언스가 축적해온 광학 분야의 전문성 덕분에 실현 가능했다. 기존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면에만 컬러를 입히는 것과 달리, 피부 본연의 컬러를 모방해, 피부와 가장 유사하게 어우러지는 피부 컬러 모방 성분을 담아낸 것. 실제로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인위적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붉은 기 정도만 가려져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정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여성들이 가장 기대하는 지속력 부분에서도 세범 키프를 테크놀로지를 함유, 피부 표면의 피지를 잡고, 번들거림을 완화해 아침에 하고 나온 메이크업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평소 얼룩덜룩한 피부 톤과 칙칙한 안색, 푸석푸석한 피부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이렇듯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디올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쿠션을 추천한다. 사용감이 가벼운 롱래스팅 텍스처를 원한다면 기초 케어 제품을 바른 후 쿠션을 톡톡 발라주고, 쿠션의 마무리감보다 정교한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파운데이션과 함께 사용할 것. 문의 080-342-9500 에디터 이지연



sensual Duo

"메이크업은 여성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디자이너 톰포드 살짝 벌린 도통하고 매끄러운 입술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 그녀만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해줄 여덟 가지 컬러의 립 컬러와 립 셰이퍼의 만남으로 입체적이고 글래머러스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센슈얼한 마지막 터치, 톰포드 뷰티 립 컨투어 듀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내면에 숨겨진 여성의 관능미를 깨우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며 여성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메이크업 룩과 에디팅을 제안하는 톰포드 뷰티의 핵심에는 특유의 시그니처 룩을 완성해줄 세련된 컬러, 빛과 음영을 이용해 입체적인 윤곽을 살리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있다. 올가을,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적인 립 제품 톰포드 뷰티 립 컨투어 듀오는 이런 톰포드 뷰티의 철학 과 과학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제품이다. 하나의 제품에 서로 다른 재형의 립 컬러와 립 셰이퍼를 함께 구성해 입술의 음영감과 입체감을 극대화해 톰포드 뷰티가 추구하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의 진수를 고스란히 담은 것. 사용 방법은 다채롭고 무엇보다 쉽다. 먼저 하단의 립 컬러로 입술 안쪽에서 3분의 1 자갈까지 컬러를 입히고, 나머지는 팬실처럼 생긴 립 셰이퍼를 이용해 립 라인을 정돈하듯 터치하며 그라데이션해주는 것. 립 컬러는 입술에 녹아들 듯 촉촉하고 크리미한 텍스처이며, 립 셰이퍼는 매트한 사틴 질감으로 고안했다. 또 립 컬러는 립 셰이퍼의 컬러보다 진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립 컬러와 립 셰이퍼의 텍스처와 컬러 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인 올브레 립을 쉽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라데이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립 셰이퍼는 매끄럽게 마무리되지만 굵은 글리터를 소량 함유해 더욱 입체적이고 글래머러스한 룩을 완성한다. 톰포드 뷰티 트러닝 매니저 신민홍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때로는 립 셰이퍼를 베이스화해 표현해보길 추천합니다. 입술 중앙에 립 셰이퍼로 스캐치하듯 컬러를 입히고, 립 컬러를 입술 안쪽에서 립 라인이 두들기듯 소량만 블렌딩하면 서로 다른 텍스처의 조화로 모던하고 세련된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라고 활용 팁을 설명한다. 내추럴한 베이비부터 강렬한 레드까지, 팽팽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색감과 톤을 담은 여덟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노란기가 도는 피부 라면 피부 톤을 화사하게 살려줄 퍼플, 자두색 계열의 '쇼잇 오프', 메이크 미 컬러를, 피부 톤이 붉은 편이라면 피부 톤을 고르게 연출해줄 피치 핑크, 라일락 핑크 계열인 '플링 잇 온', 드림 오브스킨 컬러를 추천한다. 가장 쉽고 빠르게 이미지 변신과 활력의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립 컨투어링의 힘. 올가을엔 톰포드 뷰티 립 컨투어 듀오의 내면에 숨겨진 센슈얼한 판타지를 일깨워보자. 톰포드 뷰티는 컬러라이브화점 압구정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무역센터점·판교점에서 만날 수 있다. 2.2g 6만 원. 문의 02-3440-2750 에디터 권유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컬러 표현. "립 셰이퍼와 립 컬러가 톤은 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를 믹스하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죠. 이이들 부분에 립 셰이퍼를 색도처럼 활용해 퍼 빌려주면 입술에 비친 립 컬러와 자연스럽게 매치되어 한층 세련되고 정제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덟 가지 컬러 모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컬러들이라 단독으로는 물론, 서로를 믹스해서 사용해도 밸런스가 훌륭해요." 드민진미엔 원장

립 컬러와 립 셰이퍼로 쉽고 다양한 립 메이크업 연출. "발림성이 좋고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표현되는 발색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에요. 또 립 컬러와 립 셰이퍼가 2 in 1으로 구성되어 두 가지를 믹스하는 방법이나 양 조절에 따라 다양한 립 메이크업을 쉽게 연출할 수 있죠. 컬러의 지속력을 높여려면 립 셰이퍼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그 위에 립 컬러를 발라주세요. 보다 자연스럽고 도통한 입술을 표현하고 싶다면 립 컬러를 안쪽에 바른 후 립 셰이퍼로 립 라인을 따라 그라데이션하듯 비르면 돼요. 여덟 가지 컬러 모두 예쁘지만 올가을엔 고혹적인 색감을 연출해줄 퍼플릭 디스플레이, '쇼잇 오프' 컬러를 추천하고 싶어요." 보배101 황병훈 원장

editor's Pick

고효적인 색조 메이크업부터 촉촉한 고보습 스킨케어 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선택한, 쌀쌀한 가을에 어울리는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인나수이 아이브로우 컬러 컴팩트** 입증받은 위도와는 달리, 아메 베도 유령 뷰티 프로그램에서 아이브로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력을 자랑한다. 왼쪽에 있는 컬러로 이루어진 안을 잡고 오른쪽의 컬러 팔레트를 적절히 블렌딩해 꼼꼼하게 채우면 자연스러운 눈썹을 완성할 수 있다. 3g 3만5천원. 문의 02-772-3120. *by 아사나트 김수민*

조르지오 아르마니 엑스시시 라키 탑 코트 에디션 508 끈적임 없는 촉촉한, 글라스를 바른 듯 반짝이는 플립핑 효과, 기피를 마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까지, 기히 인생 립스틱이라고 칭할 만하다. 한국 여성의 피부 톤에 예쁘게 어울리는 3개의 핑크 컬러를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서두를 것. 6ml 4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이오퍼미너리 트리트리트먼트 컬러 컨트롤 쿠션 쿠션 팩트는 얼굴을 톡톡 두드리자마자 풍부한 수분감이 느껴진다. 보통 화장품의 기본 원료인 정제수 대신, 녹차 성분과 각종 아미노산, 마네콜 성분이 풍부한 대나무 수액을 함유했기 때문. 피부에 아주 얇고 가볍게 밀착되어 본인의 광을 살려주는 자연스러운 피부 톤 연출이 가능하다. 30g(리필 포함) 6만5천원대. 문의 080-020-5757. *by 에디터 이지현*

라메르 화이트닝 에센스 인텐스 최근 에센스를 넘어 더 농축된 성분을 담은 인텐스 제품이 대세다. 라메르의 화이트닝 에센스 인텐스 역시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밝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집중 케어 제품이다. 피부를 살짝 코팅해주는 반투명한 텍스처 덕분에 자극 없이 수분감 넘치는 화이트닝 케어가 가능하다. 30ml 39만5천원. 문의 02-3440-2593. *by 에디터 배미진*

골레드보 밤에 로즈 사나리아르 골레드보 브랜드 하이엔드 스킨케어 라인인 사나리아르를 사용할 때마다 특유의 우아하고 깨끗한 향이 향에 늘 감탄하곤 했는데, 반갑게도 이 향을 더욱 풍부하게 담은 향수를 출시했다. 정미, 라몬, 아나스, 바질, 레몬그라스 등 여섯 가지 노트를 아로마 블룸어 기법으로 담아 피부에 가볍게 걸린 실크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향이 톤보인다. 50ml 38만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권유진*

결망 리프 뒤 트레 프라세사용 엘트 아이리어나 아이리얼을 그리는 화장대 앞에서 싸늘한 모든 여자에게 권하고 싶은 아이템. 붓 펜 아이리어나의 경우, 탄탄하지 않은 브러시 때문에 여러 번 덧그리기 상산인데, 이 제품은 애플리케이션의 탄성이 좋아 리얼인 두께와 강약을 조절하기 쉬우며, 오래도록 지속된다. 1ml 5만원. 문의 080-343-9500. *by 아사나트 김수민*

CNP Rx 유스 인스트루메티 액시 얼름 끈적하고 투명한 텍스처가 인상적인 제품. 천연 항산화 성분을 담아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인연을 받았다는 것도 믿을 만하다. 주근깨, 주름 등 노화의 주요인물 해결부론산, 아미노산,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확실한 성분으로 예방해주기에 프리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추천한다. 50ml 18만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배미진*

프레쉬 씨트론 드 빈 캔들 피치 냅타, 만다린, 차이나스 오일스 플라워가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초. 불에 태우지 않아도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발향력이 뛰어나다. 천연 코튼과 카드보드로 만든 상자 태울 때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아 더욱 안심이고, 매끈하고 긴장한 캔들 케어스인 테라어 스킨 케어를 특히 한다. 215g 8만6천원대.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권유진*

몰포드 뷰티 아이 컬러 워드 펄 포드스라운 대담한 컬러와 스파클링 쉘 입자가 돋보인다. 율가를 트렌드인 소프트 음영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팔레트다. 특별한 날 완벽하고 매혹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면, 이 컬러들로 도전해보길. 10g 10만원. 문의 02-3479-1436. *by 에디터 이지현*

시슬리 워드 블랑 인텐시브 다크 스팟 코렉터 하루 두 번씩 4주간 사용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크 스팟 케어 제품. 작탄 효과는 확실하다. 오랜 마니아층을 지닌 시슬리의 기초 스킨케어 라인에게 믿을 만하다. 여름휴가 동안 눈 밑, 양 볼에 가뭇한 기운이 생겼다면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길. 몰포드 타입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7ml 15만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배미진*

에디션 드 파롬 프라세리 팔 말론 앙탈레일 보디 밀크 오로지 향에만 집중하는 오트 쿼트르 파롬의 선구자인 프라세리 앞에서 선보이는 보디 밀크이니 향이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부드러운 마스지에 상쾌한 내뿜기, 오랜지 부로스트, 베르가모트를 더해 깨끗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으로, 샤워 후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보디 밀크를 바른 뒤 시원한 표근한 이빨이 온몸을 감싸는 듯 순수하면서 보습보습한 느낌이 든다. 200ml 12만8천원. 문의 02-3479-6258. *by 에디터 권유진*

다움 프레스티지 라크렐 보습이 필요한 가을, 가을에 제각각 다양한 재생 크림. 장미 향을 가득 머금은 라크렐과 끈끈한 텍스처로, 비록은 순간 마치 벨벳과 같은 매끈한 피문결로 거듭난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톤과 결이 균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0ml 46만원대.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이지현*

셀화수 수율크림 셀화수의 수분 케어 제품은 한 번도 실망시키는 적이 없다. 촉촉한 제형, 비록은 즉시 스며드는 놀라운 수분감과 지속력은 셀화수가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자취사부터 추천한 수액 성분이라는 점도 믿을 수 있다. 50ml 9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미진*



expert Advice

화장품 매장에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피부를 측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카운슬러들과 상담할 수 있다면? 피부 전문가들이 만든, 까다로운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CNP Rx 매장에서 경험한 아주 특별한 체험.



일명 'PHA 에센스'로 불리는 CNP Rx 스킨 레주베네이팅 마미르 에센스.

정지영 아나운서, CNP Rx 매장에서 피부를 진단받다
백화점은 여전히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장소다. 로드숍과 온라인숍이 많아졌지만 제대로 된, 내 피부에 맞는 가장 확실한 화장품을 찾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분으로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더욱 신뢰가 간다. 최근 백화점의 뷰티 매장을 돌아보면 단순히 제품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뷰티 루틴을 소개하고, 현재 피부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주기도 한다. 이미 피부 전문가들이 개발해 입소문과 확실한 효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차원박 화장품이 백화점에 코즈메틱 매장을, 그것도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를 론칭했을 때는 여타 브랜드들과는 다른 특별한 면이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소공동 본점에 입점한 CNP Rx 매장은 화장품을 사랑하는 여성들을 위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피부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고민을 상담해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피부 전문 카운슬러 시스템을 고안한 것. 이 시스템은 피부 진단 기기인 Rx-ray로 면밀하게 피부를 측정 후,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Rx-per들의 카운슬링을 받는 CNP Rx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다. 사진 속 정지영 아나운서도 CNP Rx 매장을 찾아 직접 경험해보았는데, 먼저 3D 멀티 안면 분석 진단 기기인 Rx-ray로 피부 상태를 자세히 꼼꼼하게 측정했다. 이 Rx-ray는 일반광, 편광, 자외선광을 이용해 얼굴의 삼면(정면, 좌측, 우측)을 측정해 피부의 모공과 주름은 물론 피부 톤 채도, 포피층과 진피층의 색소침착 정도, 피지량 분포까지, 폭넓고 정밀한 피부 상태 진단이 가능한 전문 기기다. 물론 우리는 CNP Rx 덕분에 이 기기를 백화점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임상 평가 기간, 화장품 연구소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로, 이보다 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뷰티 카운슬러는 보기 드물다. 기존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는 단순히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그쳤지만, CNP Rx에서는 이 기기를 통해 피부 상태를 정교하게 체크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스킨 카운슬러 Rx-per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교육과 스타터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프래세리아기에 더욱 믿음 만다.

전문적인 카운슬러가 제안하는 최적의 안티에이징
이렇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된 후에 사용하는 제품은 조금 더 특별하고 전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스킨케어 그 이상의 경험, 'real experience'라는 확실한 캐치프레이즈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을 추구하는 차원박 화장품의 프레스티지 브랜드인 CNP Rx. 피부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연구가 농축되어 진정한 효능을 발휘하는 화장품은 이러한 까다로운 피부 테스트 기기와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제품 기획부터 연구 개발까지 피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원료부터 성분까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만 선보이는 CNP Rx의 '스킨 레주베네이팅 마미르 에센스'는 진정한 피부 개선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해답이다. 보호와 관리, 유지, 케어로 이루어진 CNP Rx의 4단계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적인 구성 제품으로, 피부 속부터 변화시키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에센스다. 일명 'PHA 에센스'라고 불리는 마미르 에센스에는 CNP Rx의 특허 성분 PHA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첫째, 자극 없이 노폐 각질을 케어해 피부 턴오버 관리에 도움을 주고 둘째,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워 탄탄하고 투명하게 가꾸어주는 더블 스템 케어를 선사한다. 또 건강한 피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피부 pH 밸런스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한층 더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PHA는 피부에 친화적 침투하는 만큼 자극이 적은 에센스나 크림 등 장시간 피부에 도포하는 제품에 적합한 성분. 특히 성분 분자까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구조로 이루어져 보습 기능도 매우 탁월하다. 더욱 복잡해진 최근의 화장품 시장에서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차원박 화장품의 피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로 완성해 근본적인 실질적인 피부 관리를 돕는 리얼 엑스퍼트 코즈메틱 CNP Rx는 피부 속부터 변화시켜 진정한 피부 개선 효과를 선사해 까다로운 소비자들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될 것이다. 문의 080-023-7007 에디터 배미진



Rx-ray 측정 후 결과를 토대로 피부 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정지영 아나운서는 매장을 방문해 대표 제품 마미르 에센스를 직접 테스트했다.



"보통 피부가 딱딱하다, 가을을 보고 문득 주름이 늘어났 것 같다 등 자꾸하 주근깨인 생각으로 화장품을 고르곤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CNP Rx 매장에서 받아본 피부 진단과 처방 서비스는 일단 Rx-ray라는 전문 기기로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상담을 통해 지금 내 피부에 꼭 필요한 제품을 처방받을 수 있어 더 신뢰가 가고, 그 만큼 피부 개선 효과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처방받은 제품 중에 PHA 콤플렉스 성분이 담긴 마미르 에센스는 사용 할수록 피부가 투명하고 매끈해지면서 탄력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 요즘 가장 이끄는 제품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정지영*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CNP Rx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차원박 화장품의 새로운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독자분들께 피부 근원을 바꾸어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로 깨어나게 해주는 마미르 에센스가 포함된 CNP Rx '스킨 레주베네이팅 4종 키트'를 증정합니다. 또 전화 예약 후 매장을 방문한 쿠폰 지참 고객께 CNP Rx의 정밀 피부 진단 기기 Rx-ray 체험 및 처방 기회를 드립니다.



◆ **증정품** CNP Rx 스킨 레주베네이팅 4종 키트 ◆ **기간** 2016년 9월 7일(수)~30일(금) ◆ **문의** 080-023-7007/고객 상담실, 우수사자요 부팀
◆ **증정 매장**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1층(02-3438-6062),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02-2143-1797),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1층(02-772-3988)
※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일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됩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상급 원료만 사용하는 캐시미어로 완성한 여성용 니트, 윤기가 느껴지는 캐시미어 머플러, 촉감이 다른 부드러운 직조 방식의 남성용 울오버 니트, 염색 후 다시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 자연스러운 이빨로인 칼라로 완성한 콜롬보의 시그처 캐시미어 재킷, 케이트, 래빗 퍼플 매치한 니트 글러브, 촉감인으로도 최고의 캐시미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렌지 컬러 캐시미어 숄,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매력적인 캐시미어 글러브, 모두 콜롬보 노블 파이버.



noble Fibres

멋진 옷, 트렌드를 추구하는 감각적인 패션 피플이라도 섬유와 원단이 생산되는 과정과 그 가치까지 알기는 어렵다. 장인 정신과 고유의 가치를 묵숨같이 여기는 이탈리아인의 정수가 담긴 놀라운 브랜드가 있다. 보석 같은 패브릭으로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Colombo Noble Fibres)가 탄생하는 현장에 다녀왔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최고의 브랜드가 선택한 이탈리아 패브릭, 콜롬보 노블 파이버

이탈리아에서 좋은 옷을 만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 좋은 패브릭, 그리고 퀄리티가 뛰어난 원사가 필요하다는 요소까지 대중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어렵다. 최고의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럭셔리 패션 비즈니스에서 하이 퀄리티 패브릭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캐시미어, 비큐나, 캐멀이 없다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 수 없기에, 최고의 패브릭만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는 브랜드가 콜롬보 노블 파이버다. 1960년대 루이지 콜롬보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브랜드 콜롬보의 놀라운 가치는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우선 최고급만 추구하는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캐시미어 패브릭은 물론 다양한 고가의 패브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금 패션 신의 중심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셀린느의 실험적이지만 고급스러운 패브릭을 개발하는 것 역시 콜롬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에르메스가 의류 카테고리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다른 브랜드를 쉽게 언급하지 않는 에르메스 CEO가 직접 나서 원단을 공급해준 콜롬보의 공이 컸다고 이야기한 일화는 이탈리아 출장 기간 내내 프레스들에게 회자가 되었다.

최고급 캐시미어부터 진귀한 비큐나까지

밀라노에서 차로 1시간, 콜롬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고장은 오르타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의 보르고세시아(Borgosesia)와 겐메(Ghemme) 지역. 이탈리아의 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스위스와 맞닿아 있다. 이곳에는 에르메네제일로 제나와 로르피어나, 콜롬보의 원단 생산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모두 이탈리아, 혹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다. 퀄리티를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미네랄 함유량이 적은 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이 패브릭을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30,000㎡, 4백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94단계의 생산 공정과 18번의 꼼꼼한 중간 점검을 통해 완벽한 패브릭을 생산한다. 주로 다루는 원재료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미어를 비롯해 '신의 섬유'로 불리는 비큐나(vicuña), 잉카제국 왕족의 옷에만 사용했던 친칠라(chinchilla) 등 진귀하고 특별한 섬유다. 이탈리아 내에 고급 패브릭을 생산하는 곳은 많지만, 에르메스, 루이 비통, 프라다, 구찌, 후고 보스의 최고급 라인을 위해 패브릭을 생산하고 자체 레이블을 운영하며 명크와 친칠라 같은 값비싼 소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은 오직 콜롬보뿐이다. 콜롬보를 이야기할 때 비큐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워낙 희귀해 이 소재를 다루는 브랜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데, 콜롬보는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실로 만들 수 있는 최고급 소재를 제공하는 비큐나는 1년에 오직 250g의 울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적다. 비큐나로 제작한 코트의 윤기와 가벼움은 캐시미어나 인공적인 섬유로 재현할 수 없고, 시계나 보석처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가치 높은 패브릭이기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퀄리티가 깃을 만든다

전 세계 각지에서 원재료 채취부터 원사 생산, 패브릭 완성까지, 거의 예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공정으로 탄생한 패브릭 중 최상급만 선별해 만든 것이 바로 콜롬보의 의류 컬렉션이다. 좋은 패브릭을 만드는 브랜드답게 프리미엄 의류 시장에서도 인상적인 행보를 보였다. 2010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거리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오픈했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 14개 매장, 2백 개의 주요 백화점 및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다섯 곳(에비뉴엘 본점, 월드타워점, 신라호텔 아카데미점,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대백프라자)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의상, 소재를 돋보이게 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한 컬렉션을 소개하기 위해 50km에 달하는 패브릭을 생산하고, 다양한 직조 방식을 개발한 후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도 콜롬보만의 노하우다. 패션 생태계가 다양해질수록 원재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단 하나의 실로 150g에 불과한, 너무나 가벼운 남성용 수트 재킷을 만들어내는 콜롬보의 가치는 역시 이탈리아이기에 가능하다. 이탈리아인의 장인 정신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거나, 거대 기업이 이탈리아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브랜드를 인수 합병하는 등의 변화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전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본질을 잊지 않고 자신만의 발전, 퀄리티를 위한 노력을 거듭하는 심지 굳은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콜롬보 노블 파이버인 것이다. 문의 02-2118-6165 에디터 배민이(이탈리아 현지 취재)



1 최고의 소재가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든다는 철학을 지닌 콜롬보의 2016 F/W 여성 컬렉션. 2 인크와 친칠라, 세이벨 등 고가의 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3 오직 소수의 브랜드만이 재장권을 갖고 있는 비큐나. 4 페브릭 고유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고전적인 방법대로 카본도 열매로 패브릭의 잔털을 일으켜 기모를 만들어낸다. 5 원사부터 패브릭, 의류까지 생산하기에 퀄리티 컨트롤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6 의류 디자인 팀을 별도로 운영하지만 디자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원단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콜롬보의 원칙이다. 7 실험 정신과 도전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현재 콜롬보의 CEO 로베르토 콜롬보. 8 최상급 캐시미어 패브릭으로 완성한 콜롬보의 남성 재킷.

BMW 뉴 7 시리즈와 만난 심장외과 전문의 이영탁 교수

the value of Trust

심장 혈관 질환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이영탁 교수는 '차기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갖춘 이라는, 흔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조합의 미덕을 겸비한 인물이다. 단 몇 분만 얘기를 나눠도 절로 신뢰감을 갖게 만드는 이 '뜨거운 심장'의 명의를 밝힌 소신은 BMW 뉴 7 시리즈가 추구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BMW 뉴 7 시리즈 홍보대사로 선정된 뒤 "이 차에 어울리는 더 훌륭한 의사가 많다"며 겸손함을 내비친 이영탁 교수. 그는 사실 유난스레 좋은 차를 추구하는 타입도 아니었다. "뉴 7 시리즈를 타본 후 나 자신의 격이 업그레이드되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처음엔 길고 큰 사이즈에 부담스러웠지만 탈수록 정말 좋은 차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우선 기대했던 대로 아주 잘 달려요. 목적인 주행감도 마음에 들고, 승차감도 훌륭하고요. 실내 가죽 시트가 주는 고급스럽고 은은한 멋도 일품입니다. 무엇보다 피아노를 전공한 음대 교수인 아내가 차 안에서 음악을 들어본 후 사운드에 아주 만족했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완벽한 결합을 이루며 안락한 기분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신뢰 속에 쌓이는 '교감'이라는 공통분모

그는 뉴 7 시리즈를 타며 BMW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의료계에 적용은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에 감화된 듯했다. BMW 코리아에서 이미 판매한 차량을 계속 세심하게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BMW 코리아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돕는 '베스트레인 서비스 센터', 여행이나 출장 기간 동안 서비스 센터에 맡겨 차량을 점검해주는 '에어포트 서비스', 수리가 필요한 차량의 '픽업&딜리버리 서비스'와 차량을 맡기고 가는 고객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셔틀 서비스' 등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외부 자동차 수리 업체에 자사의 차량 정비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A/S 수익보다 고객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파격적 결단을 보여줬다. 브랜드에 한층 더 신뢰성을 더해주는 서비스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얘기하는 의료 서비스 또한 딱딱하거나 의례적이지 않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보살핌의 서비스다. 지난 7월 말 EBS 방송국에서 방영한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시리즈 속 이영탁 교수가 노인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나누는 장면은 방송용으로 연출된 게 아니었다. 그는 환자가 의사에게 정신적으로 편히 의존할 수 있도록 곁을 내주고 작은 부분부터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젊을 때는 환자들이 찾아와 개인적 사정이나 치료 시 겪는 부가적 애환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았죠. 내 일 바쁜 것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50대 중반에 이른 후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주위를 더 넓은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어요. 그들의 얘기를 진심으로 듣게 된 거죠. 후배들에게도 늘 말해요. 심장뿐 아니라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드려야 한다고." 이영탁 교수는 이렇게 환자에게 관심과 교감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가말로 생명을 다루는 심장외과 의사가 갖춰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심장외과는 급박한 응급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금세 수술 부위가 잘못되는 일도 다반사다. 그 일일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놓쳐버리는 순간의 방심이 환자의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도 '조용한 생명'을 위한 수단일 뿐

이런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불모지였던 국내 심장병 치료 기술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의료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심장 질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일천하던 시절이었다. 집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앓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았다. 심장외과의 젊은 피였던 이영탁 교수는 1996년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만드는 '무(無)펍트 심장동맥 우회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 수술을 성공시켰다. 손에 완벽하게 익지 않으면 함부로 시도하기 힘든 고도의 기술이다. 일단 심장을 정지시키고 인공 심폐기를 돌린 상태에서 수술하는 이전의 기술에 비해 시간이 1~2시간이나 단축되고 뇌졸중과 부정맥 등 후유증도 줄어들었으니 그야말로 획기적 비약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후로 이영탁 교수가 관상동맥 우회술의 전문의로 자리 잡은 것처럼 심장 수술이 세분화되면서, 각자 전문 분야에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어지고 기술이 더해지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 발전의 중심



1, 2 BMW 뉴 7 시리즈와 심장외과 전문의 이영탁 교수. 3 비행기 파스틀 클래식처럼 넓고 편안한 뉴 7 시리즈 뒷좌석. 4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뉴 7 시리즈 실내.

에 이영탁 교수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는 BMW 뉴 7 시리즈를 타면서 외과의사가 갖춰야 할 본질, 또 앞으로 계속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새삼 되돌아보게 된 듯했다. "뉴 7 시리즈에서 경험한 새롭고 효율적인 첨단 기술, 이를테면 손가락을 간단히 움직여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제스처 컨트롤, 살짝 터치하기만 해도 조작되는 터치 패널 스크린, 이렇게 큰 사이즈임에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같이 심장 수술도 점점 미니멀화되고 있어요. 더 빠른 시간 안에 몸에 최대한 무리를 덜 주는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으로도 성공하는 수술 기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도 내 기술을 배우되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늘 다음에 필요한 것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필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법이거든요. 단, 이 모든 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완벽한 수술을 해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본질임을 잊어서 안 되니까요." 그의 머릿속은 늘 심장 수술로, 가슴은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국내 심장 질환 치료에서 격변의 시대였던 지난 30여 년을 가장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세월의 두께만큼 묵직하고 깊이 있는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6세대에 이르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유의 '잘 달리는' 본질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전통의 핵심을 잃지 않고 현대적인 맛을 더한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기술로 눈부신 혁신을 이뤄 낸 뉴 7 시리즈를 신뢰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 말이다. 글 이영탁



splendor of Colors

에르메스가 소유한 크리스털 브랜드, 이 수식어만으로도 그 격을 알 수 있는 브랜드 생-루이는 4세기가 훌쩍 넘는 역사 속에서 장인이 입으로 직접 붙여 만드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버킨백을 연상케 하듯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생-루이의 '작품'이 펼쳐내는 빛과 색의 미학은 눈길을 절로 사로잡는다.

"럭셔리란 사람의 재능을 통해 사물이 완벽해지는 것이다." 기계를 쓰지 않고 입으로 직접 붙여 와인 잔을 제작하는 유리 세공 작업을 지켜보러던 프랑스의 사상가 질 리포베츠키가 한 이 말을 기꺼이 수긍하게 된다. 결연한 눈매의 장인이 입으로 긴 대롱을 문 채 유리 용해 물을 빨아올리고, 붙여내고, 손으로 회전시키면 유리가 거품 모양을 띠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근사한 매무새를 갖춰간다. 물입의 강도가 워낙 높은 작업인지라 보는 이도 뺨을 놓을 만큼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를 가리켜 '사물과 한 몸이 된 상태'라고도 표현했다. 게다가 이처럼 장인의 영혼이 깃든 손길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빼어나게 아름답다. 안타깝게도 대량생산의 패권으로 이처럼 섬세한 수작업으로 빛어낸 유리 세공은 이제 접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현대 문명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위대한 '생각하는 손'의 맥을 4백 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에르메스가 이끄는 하이엔드 크리스털 브랜드 생-루이(Saint-Louis)다.

최고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빛어내는 에르메스 소유의 크리스털 브랜드

1836년 유리 세공가 뮌츠탈(Münzthal)이 탄생시킨 생-루이. 무려 4백3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브랜드는 1767년 루이 15세에게 '왕실 유리 제조'라는 칭호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장인 정신을 계승해오고 있다. 프랑스 북동 지역의 모젤에 자리 잡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생-루이의 장인들은 최소 10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장인' 자격을 얻는다고. 생-루이의 전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관장하는 인물은 최근 아티스트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파트리크 노이(Patrick Noy)다. "최고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까다로운 제작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품질입니다. 작은 기포 하나, 불순물 하나가 오버제를 망친다고 생각하니까요. 에르메스 버킨 백과 마찬가지로." 생-루이의 수장인 제롬 드 라베르놀(Jérôme de Lavernolle) 최고 경영자(CEO)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모두가 '품질'을 강조한다. 하지만 생-루이가 말하는 품질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수작업인 만큼 제작 과정이 더 지난하기도 할법한데, 자질한 흠도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미학적인 완성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한 러시아 고객이 5,000㎡ 공간에 어울리는, 기존 규격을 훨씬 뛰어넘는 대형 상들리에 제작을 의뢰하자 18개월 동안 원하는 '작품'을 만들 만큼 정성을 들이는 수준의 완성도다. 그런 만큼 상들리에, 화병, 와인 잔 등 모든 제품마다 풍부한 세월 속에 진화해온 '생-루이'만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빛과 색채의 미학, 전통과 혁신의 결합으로 진화를 거듭하다

수작업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요소만 갖춘 건 아니다. 19세기 금세공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지만 첨단 LED 기술도 활용하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르 누보와 아르 데코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라인'도 갖추었지만 카키 반 아이크, 파올라 나보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컨템퍼러리 라인'도 내놓고 있다. 정체성의 핵심을 간직하되 변화의 흐름을 조화롭게 반영하면서 계속 진화해나간다는 '전통과 혁신의 결합' 전략을 반영한 노선이 다.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제품과 조명에 공들이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이니 수작업이니 하는 요소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요소는 역시 '아름다움'이다. 특

히 '색의 연금술'이라 불릴 정도로 생-루이 제품의 '컬러 크리스탈'은 압권이다. 이중으로 처리된 섬세한 색조 덕분에 잔을 움직일 때마다 펼쳐지는 빛의 향연이 불규칙적으로 자유롭게 깎아낸 듯한 커빙을 감각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와인을 투명 잔에 채우면 물은 유색 잔에 따라놓는 식으로 테이블을 세팅할 때 생겨나는 '색의 대조미'는 그야말로 예술이다. 이러한 예술성과 기술의 조합이 자야만 가치를 인정받아 뉴욕 메트로폴리탄, 커티스 미술관, 파리의 장식미술 박물관 등 세계 유수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 생-루이 작품도 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에서 접할 수 있다. **에디터 고성민**



1 디자인부터 설계, 제작까지 정밀 18개월에 걸쳐 완성한 맞춤형 상들리에. 2 생-루이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제롬 드 라베르놀. 3 생-루이에서는 최고의 장인들이 입으로 직접 붙여 와인 잔, 상들리에, 화병, LED 조명 등을 만든다. 4 유명한 크리스탈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컬러 크리스탈 제품들. 이런 색의 조합은 생-루이가 지향하는 빛과 색채의 미학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5 원숭이 배를 닮아 생-루이 크리스탈 문진.



found Narratives

창당동에 패션 고풍의 관심을 집중시킬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다. 바로 드라마틱한 익스테리어와 환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가득한 미우미우(MIU MIU) 플래그십 스토어다.

창당동의 새로운 아이콘, 미우미우 부티크

명품 패션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창당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메탈 커튼으로 뒤덮인 인상적인 건축물과 마주친다. 컬러풀한 소위도와 파격적인 패션 아이템, 선명한 스카이가 블루 컬러의 다마스쿠스 패턴이 가득한 이곳은 지금 가장 인상적인 행보로 패션을 이끌고 있는 미우미우의 새로운 부티크다.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벌써 10년도 전에 <야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로 이미 유명했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는 더 세계적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우미우(MIU MIU)는? 1993년 프라다의 중상위차 상징 그 자체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보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 론칭한 브랜드로, 패션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밀라노를 시작으로 뉴욕과 런던에서 컬렉션을 선보였고, 2006년 S/S 시즌부터 파리에서 컬렉션을 선보이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다. 클래식함과 상반된 요소의 매치에서 느껴지는 매력으로 가득한 미우미우는 도시와 전원, 남성성과 여성성, 쿨투르와 스트리트, 과거와 현재, 추함과 아름다움, 고급스러움과 값싼 것들과 같은 우리의 삶 전반에 스며든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 하이 패션과 로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이방기르드하고 유틸 있는 패션을 선보이는 이 독특한 브랜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향을 얻었기에 미우미우 플래그십 스토어가 서울, 그리고 패션의 중심인 창당동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오직 이곳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

패션 브랜드에서 특정한 매장을 위해 한정판 컬렉션을 선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해당 지역과 부티크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한국, 그리고 서울을 패션계에서 주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기에 미우미우 역시 창당 부티크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가방을 선보였다. 지금 매장을 찾으면 1층 안쪽 최신클렉션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 백의 다양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클래식한 형태에 파격적인 패치워크 장식과 로고 패치를 장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지수와 로고 패치, 홍화과 말, 늑대, 새 등을 모티브로 한 패치가 가방마다 다르게 조합되어 있다. 폭스 퍼 참 장식까지 모두 달라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다크 그레이, 핑크, 터퀴즈, 버건디 컬러까지 총 네 가지 컬러에 모두 다른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가장 안쪽에는 'Miu Miu Special Edition'이라는 문구가 적힌 태그가 달려 있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바버리아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스니커즈도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벨벳 소재에 메탈 스티드를 더해 더욱 럭셔리한 느낌이다. 이 모든 제품은 오직 창당 부티크에서만 판매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창당동 미우미우 부티크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의상. 검은 대리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레드 투 웨어로 가득한 공간을 만나게 된다. 마치 아름다운 라운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품격 있는 유리 테이블 사이에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이번 시즌 주제인 귀족 가문의 라이프스타일이 느껴지는 의상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카디건 컬러의 끝부분에 덧댄 손으로 짠 크로세 디테일, 지수로 만든 배지, 커튼과 고급 브로케이드, 벨벳 소재를 활용한 화려한 아이렘은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문의 02-541-7443 **에디터 배미진**



1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다마스쿠스 패턴을 활용한 인테리어. 2 메탈 7색으로 장식한 미우미우 부티크의 외벽. 3 레이스와 패치 등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2016 F/W 컬렉션. 4 미우미우 창당 부티크가 오픈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배우 한효주가 매장을 찾았다. 5 오직 창당 부티크를 위해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 백.





go Retrolicious

레트로 감수성을 품은 바에서
옛보이는 창업가 정신

좀처럼 시들지 않는 '레트로' 열풍은 그저 지나가버린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정서의 반영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레트로 감수성은 장난기 어린 호기심에 과거에서 재미와 매혹을 찾을 뿐, 분명 현재를 감각적으로 반영하고 미래를 추구하는 진취성도 품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요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젊은 창업가들이 창의적으로 바(bar)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광경을 보노라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시각이다. *photographed by park sung young*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변화무쌍한 디지털 시대에, 묘하게도 복고(復古) 열풍은 지지지도 않는 듯하다. 유행은 돌고 돈다지만 패션, 음악, 책, 미식 등 여러 분야에서 레트로풍이 수년째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단지 옛 감성을 살린 레트로 스타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정도가 아니다. 1990년대에 인기를 끌던 아이돌 그룹들이 재결성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LP 레코드가 다시 발매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으며, 무라비블 같은 고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복고풍 카페가 명소로 떠오르는가 하면, 서점가에서는 초판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북각본이 눈에 띈다. 이른바 '노스텔지어 산업, 혹은 '추억 비즈니스'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요즘 '대중문화는 과거에 축적된 듯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의 콘텐츠가 옛것만 못하다는 시선, 또는 문화적 퇴행이나 재창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레트로(retro)라는 단어 자체도 본디 퇴보나 역행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품고 있지 않은가.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해석이지만 반드시 그렇기만 할까? 레트로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해온 영국의 음악 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가 말했듯이 요즘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를 향한 노스텔지어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60년대의 해외 풍토를 몸소 겪지 않고도 대중문화 전성기였던 '스윙잉 런던'을 얘기하고, 1980년대에 성장하지 않았으면서도 복고 신드롬을 몰고 온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열광하는 대중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따스한 추억담이 다른 누군가에게 참신한 충격으로 느껴지는 법이다. 레트로 비즈니스가 기성세대에는 스스로 겪었던 아늑한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과의 공통적인 감성을 다시금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젊은 세대에는 신선한 감수성을 안겨 준다는 맥락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는 분석은 그래서 꽤 설득력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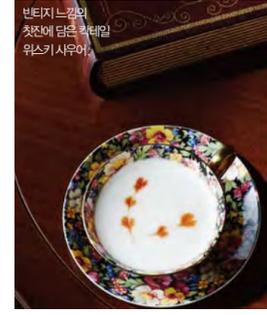
바(bar)도 레트로가 인기, 사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절충주의가 매력
핀치 모를 향수와 문화적인 새로움의 조합! 이 이중적인 매력은 요즘 레트로 바(ba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요즘 서울 청담동의 '핫한' 바들 중에는 저마다 개성은 다르지만 대체로 레트로풍이라 할 만한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런데 사실 그 공간들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에 실제로 존재했던 스타일을 재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 몸소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해왔을 법한 다국적, 다문화적 레트로 요소가 별 일관성 없이, 하지만 매력적으로 결합돼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분명 레트로 스타일이지만 다분히 현대적인 감성이 묻어난다. <레트로 마니아>라는 책에서 "레트로 감수성은 과거에서 재미와 매혹을 찾을 뿐, 오히려 현재를 염두에 둔다"라고 했던 사이먼 레이놀즈의 분석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창업자 중 상당수가 30~40대 젊은 오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경계를 넘나든 경험에 제법 풍부한 세대다. 본인들이 누려온 X세대, Y세대 문화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과거 문화와 요즘 신세대의 문화도 어느 정도 꿰고 있는 하이브리드형인 셈이다. 이들이 이끌고 있는 레트로 바의 강점 역시 이 같은 양면적, 다면적인 매력이고 말이다. 그렇다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여러 요소를 감안하다 보니 우연히 다다른 지점이 '레트로'라고 창업자들은 말한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 고객들은 술의 다채로운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9세기 금주령이나 밀주업자 같은 역사부터 요즘 인기인 싱글 몰트위스키, 장인 정신이 깃든 크래프트 카테일 같은 정보를 심도 있고, 풍부하게 접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수요에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일까? 순수하고 진지하다기보다는 장난기와 아이러니가 배어 있는 절충적인 접근 방식이 옛보인다. 그저 과거를 노리게 삼는다는 레트로 감수성을 입혀 맛을 더한 느낌이랄까. 이처럼 레트로리치스(retrolicious, retro+delicious)한 면모를 품은 이색 바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롭다.

남성적인 느낌의 '볼트82' vs 아저씨기만 분위기의 '앨리스 청담'
어느덧 청담동 '몰트 바' 업계의 터줏대감처럼 자리매김한 볼트82는 '남자들의 놀이터'를 표방하는 바담계 남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곳이다.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넓직한 공간 한쪽에는 남성용 구두가 단지 장식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진열돼 있고, 구두를 관리하거나 수선해주는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국내에서 사교 클럽 바 문화를

처음으로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곳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미식가들의 애정도 듬뿍 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 최고의 최고 발골장 중 하나인 마스터퍼베이어스에서 재료를 공수하는 스테이크 다이닝이 있다. 지난해 겨울, 공간을 새롭게 꾸미면서 가구와 소품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에서 빈티지 요소를 가미하면서 레트로 느낌이 더 강하게 풍긴다. 볼트82는 다양한 주류는 물론이고 바텐더들의 창의적인 면모로도 유명하다. 예컨대 몹시도 갈증이 심한 날, 맥켈란 파인오 12년에 드럼뿔, 얼음 등을 넣고 오렌지 껍질을 살짝 올려놓은 '카테일'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유아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이란 그럴듯한 작명을 하고는 배시시 웃는 바텐더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앨리스 청담은 지난해 4월 탄생한 '신생 바'인데도, 올해 초 모 잡지 선정 '베스트 바 1위'라는 영예를 췌한 바 업계의 총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만큼, 입구에는 혼란 기간 하나 달려 있지 않은 테다 안으로 들어가면 꽃집이 등장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연상되는 독특한 바다. 꽃집을 통과하면 레트로 느낌의 흥미로운 바 공간이 펼쳐진다. 무게를 잡기보다는 즐겁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추구하기에 예쁜 형상으로 만든 잔 받침, 토끼 모양 글라스 같은 귀엽고 정감 있는 소품을 비롯해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럽다. 음악도 비트 있는 스윙 재즈 등이 자주 흘러나와 활달하면서도 친근한 분위기가 넘친다. 신세대 취향의 바담계 오너 바텐더가 SNS를 통해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케팅 감각이 돋보인다. 바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싶었다고. 앨리스 청담 매니저는 "요즘은 정말 술을 잘 알고 마시거나 술에 대해 일부러 배우려는 이들도 많아졌다"며 글렌다렛, 아드벡 같은 싱글 몰트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여성 고객도 상당하다고 말한다.

'미스터 칠드런' vs '키퍼스', 양파 껍질 같은 다면적인 매력
'경계의 허물어짐이 특징인 이 시대에 어울리는 곳도 눈겨어볼 만하다. 공간이 크든 작든 그 안에 다채로운 매력 포인트를 한꺼번에 품고 있는 참신한 바가 있다. 일본의 록 밴드 이름을 차용했다는 미스터 칠드런은 설록과 루팡 바 출신의 바텐더 2명이 의기투합해 지난 5월 청담동에 문을 연 '신참인데, 양파 껍질 같은 매력'이 단연 돋보이는 곳이다. '철들지 않는 어른'을 위한 장소로 꾸미고 싶었다는 이 바는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입구에는 맥주와 핫도그 등을 즐길 수 있는 펍이 있고, 그 안에는 레트로 감성이 가미된 거실 같은 분위기의 메인 바가 나온다. 사실이 공간도 2개로 나눌 수 있다.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벽으로 막혀 있는 듯 보이지만 마담이 문을 열면 하나의 공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팔색조 같은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다는 오너 바텐더들의 소망을 실현해준 디자인 스튜디오 공팔이칠의 이름도 당당히 새겨져 있다. 콘텐츠가 있어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매번 콘텐츠가 다른 파티를 열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트렌드를 이끄는 애주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청담동의 또 다른 인기 바 키퍼스(Keepers) 역시 공간의 다층성이 매력적이다. 언뜻 건조해 보이는 일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산실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 문부터 나타난다. 문을 열면 우아하고 화려한 샵드리에와 뉴올리언스에서 공수한 포스터, 인기 만점의 프리미엄 보드카 엘릭스의 디자인을 활용한 선반 등 감각적인 가구와 소품으로 '콜라주'처럼 흥미롭게 꾸민 특색 있는 공간이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격조가 느껴지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느낌의 방이 들어서 있다. 남색 벽에 정갈한 느낌의 가죽 소파, 빨 달린 사슴 장식, 활인 클래식한 분위기다. 이탈리아, '북유럽' 등 1~2개월마다 콘셉트를 바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키퍼스에서는 그 과정에서 독특한 창작 카테일이 탄생한다. 당연히 바텐더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게 서운하지 않을 만큼 인기도 높다. 예컨대 '브라질리언 워치(Brazilian Watch)'는 단맛과 부드러움, 보디감을 갖춘 비앙코라는 술을 베이스로 하고 상큼한 과일인 패션프루츠를 활용해 만든 독특한 카테일인데, 부두 콘셉트를 적용했다는 해골 모양의 글라스가 멋지게 어울린다.

바 르네상스를 이끄는 창업가 정신, 창조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다
레트로 바의 인기가 반드시 레트로 열풍에 힘입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즘 음주 문화가 군대식 폭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기는 감성의 차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청담동의 핫플레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바가 전반적으로 꽃을 활짝 피우고 있고, 레트로는 그중 하나의 테마일 뿐이다. 물론 강력한 테마이기는 하다. 아마도 그건 인터넷이 사람들이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 시대가 낳은 자연스러운 산물인지도 모르겠다. 힘들어 구하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과거 문화와의 교류를 풍부하게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이먼 레이놀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까운 과거에 이토록 집착한 사회가 없었던 것처럼, 가까운 과거에 이토록 쉽고 풍성하게 접한 사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기 비결이 무엇이든 바 업계에 부는 창업 바람 자체가 반갑기 그지없다. 언젠가부터 많은 분야에서 한풀, 아니 크게 쉼의 벤처 스피릿이 적어도 바의 세계에서는 경쾌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 바에서 일하다 투자를 받아 창업에 뛰어들 경우, 바 업계의 구루 밑에서 경력을 쌓다가 독립한 경우, 해외파로 도전한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하다. 게다가 창업자들이 자칫 부정적인 위양으로 들릴 만한 레트로라는 주제를 친필일물적으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배경과 현대적인 개성으로 풀어내기에, 창조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릴 만하지 않을까 싶다. **SH 에디터 고성연**



Alice Cheongdam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맥켈란 12년.

빈티지 느낌의 청담에 담은 카테일 위스키 시유어.

정 세계적으로 많은 싱글 몰트 위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글렌다렛 18년.

아주 강력한 피트 향을 지니는 싱글 몰트 위스키 아드벡.

라브로르의 라스티 내일, 이윽과 지역의 싱글 몰트 위스키 라프로아를 활용한 카테일이다.

해골 모양의 잔이 인상적인 데다 패션프루츠를 활용한 맛도 일품인 창작 카테일 브라질리언 워치.

MONT
BLANC 



Pioneering since 1906.
For the pioneer in you.

1906년부터 이어온 개척 정신,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개척 정신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몽블랑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은
뛰어난 정밀도를 자랑하는 셀프와인딩 칼리버
MB25.07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montblanc.com/pioneering
Crafted for New Heights.

